



제26차 평의원 회의 보스턴에서 성황리에 개최

제14대 윤상래 (수의대 62) 회장 취임, 신응남 (농대 70) 차기회장 선출



취임 인사

존경하는 미주 동창회 평의원님, 동문님:

우리 미주 동창회는 숭고한 이념과 높은 목적으로 창립하여 오늘 제26년 생일을 맞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초창기의 숭고한 이념과 높은 목적을 더 높게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저희 제14대 미주 동창회 운영팀은 미주 동창회가 이 거대한 대륙에서 영구히 존속, 발전할 토대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첫째로 저는 미주 동창회관 건립을 위

한 회관 건립 위원회를 구성하여 2년마다 이사를 하여야만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찬, 반의 의견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전 동문이 참여하여 지역적으로나, 또는 실리적으로 가장 적절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동창회보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 동창회의 경비는 40%가 60대 학번, 30%가 50대 학번에 의해 조달이 되어 온다고 합니다. 이제 향후 10년, 20년이면 저 자신도 동창회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는 동창회 운영의 극심한 재정난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이처럼 다가오는 동창회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창회 운영을 위한 기금 육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금이 최소 3백만 불이 되면 그로부터 오는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로 우리의 후배들은 커다란 어려움이 없이 동창회를 운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기금 육성을 위한 연구 집행 위원회를 두어 우리의

미주 동창회의 백년대계의 큰 꿈을 실현하는 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로 6,800부가 발송되는 우리 동창회보는 경비 면에서 동창회 예산의 반을 차지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저희 14대 운영팀은 우리의 회보가 모든 동문들에게 올바른 주소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회보는 동창회 웹사이트와 병행하여 정보나 소식이 더 신속히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신문을 원하는 동문에게는 전자신문을 배달하여 경비가 절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보 발행과 발송 경비를 절약하는 것은 미주 동창회 운영의 매우 중요한 방침이 될 것입니다. 저는 회보에 관련된 모든 애로 사항을 우리의 동문들과 나누고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회보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우리 동창회에는 장학 사업을 위한 장학위원회, 서로 돕고 나눔을 위한 나눔, 봉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좋

은 뜻을 적극 장려하고 지구촌의 한 일원으로서 모두가 자부할 수 있는 미주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동창회에는 지식과 정보 교환은 물론 교육을 위한 브레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적극 발전시켜서 언젠가는 우리 모교 총동창회와 함께 활동하여 모교의 세계화로 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이 거대한 대륙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밝혀지고, 우리의 조국과 사랑하는 모교를 위하여 보람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우리의 동창회를 기르고 육성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래를 정면으로 맞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윤상래 드림 (수의대 62입)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제14대 회장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새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l: 978-835-0100
news@snuaa.org / www.snuaa.org

제26차 미주 평의원 회의

2016년 6월 23~25일, Boston



성낙인 서울대 총장

축 사

성낙인 (법대 ??)

미주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손재욱 회장님과 윤상래 차기 회장님, 미주 각 지부 동창회장님, 평의원 동문님, 역사와 교육의 도시로 유서 깊은 이곳 보스턴에서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제26차 정기 평의원 회의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직과 성실현신으로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의 긍지와 위상을 드높이고 계시는 1만여 서울대 미주 동문 여러분, 서울대학교는 동문님들의 값진 성취와 모교에 대한 사랑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발전은 동문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곳 미주에 계시는 동문 여러분의 남다른 애정과 헌신이야말로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동문님들께서는 미국 이민 초기 정착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 보이지 않는 차별 등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이제 미국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리 잡아 사회적으로 큰 역할과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동문님들이 인내와 헌신,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일군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서울대 미주 동문님들을 직접 뵈오니 서울대 인으로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동문님들의 값진 성취와 모교에 대한 사랑을 되새기며 서울대학교는 이전보다 더 넓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씩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국의 최고대학에서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저를 포함한 서울대 모든 구성원들은 마음을 한데 모아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창의적 역량과 굳건한 의지로 무장한 선(善)한 인재, 탈경계형 통합적 지성을 함양한 인재, 세계시민으로서의 품성을 갖춘 인재 양성으로 국민의 신뢰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서울대학교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창의적 의제를 발굴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학문 지성의 중심으로써 서울대학교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

한 인재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0원의 아침저녁식사, 850여명에 이르는 소득 차 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등록금 면제 뿐만 아니라 매월 30만원의 기초생활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학사업은 서울대학교 동문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뜻 있는 분들의 성원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구성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매년 40개국 500여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Inbound Program을 통해 본교에서 수학하는 등 서울대 구성원의 글로벌 다양성이 증진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00여개 대학교와 교류협정을 맺고 학생들이 장단기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Outbound Program인 SNU in World Program을 통해 Washington DC, Beijing, Tokyo, Moscow, London, Paris, Berlin, Madrid, Geneva, Brisbane, Silicon Valley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대학에서 각국의 변화와 문화 동향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성원들이 공동체의식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동문 여러분!

오늘의 행사는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의 가치와 자부심을 새롭게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인으로서의 긍지, 미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서울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매사에 용기와 결단으로 오늘을 일군 동문님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모국의 안녕과 서울대학교 발전을 위한 동문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동문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서울대학교의 오늘이 있고 또한 미래도 있습니다. 저는 동문님들과 함께 서울대학교의 미래상인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학」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 「세계와 함께 하는 대학」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로 서울대학교의 발전상을 지켜봐주시고, 오늘이 자리가 동문 상호간의 화합과 역량을 결집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문님들의 지속적인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화 서울대 총동창회 회장

축 사

서정화 (법대 55)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 손재욱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미주 각 지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참여하신 평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서정화입니다.

올해로 26회를 맞은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 평의원회의를 위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미주총동창회는 서울대학교의 재외 동문조직 중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곳입니다. 미주 전역을 망라하는 각 지부들의 활발한 활동과 이를 하나로 엮어내는 미주총동창회의 활약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각국에 설립하고자 했던 재외 총동창회의 모델입니다. 국제 사회의 중심인 미주 지역에서 동문 간 우애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여러분들에게 충심어린 致謝의 예를 표합니다.

손재욱 회장님께서 미주 총동창회에 취임하신 지도 벌써 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총동창회 임원단은 동창회관리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을 새로 개발하여 동창회의 운영을 개선하고 내실한 발전을 도모해 오셨습니다. 또한 오늘 공로패를 수상하시는 미주 8개 지부의 동창회장님들께서는 미국 각처에서 동문조직의 중핵으로서 활약 해오신 분들입니다. 이런 소중한 인재들을 한 두 분도 아니고 각 지역마다 웅립하여 서울대인의 가치를 이어온 것이 바로 미주 총동창회의 결실이며 저력을 새삼 느낍니다.

또한 미주 총동창회는 재미한인사회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동문들을 기리기 위해 따로 표창패를 수여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화학 분야와 도시교통계획 분야에서 뛰어난 학술적 성과를 남기신 윤도영 동문과 이강원 동문이 학술상을, 뉴욕과 로도아일랜드 지역에서 韓人 권익 증

진을 위해 크게 기여해오신 정해민 동문과 정정욱 동문이 봉사상을, 한인 미국시민협회를 설립하여 在美韓人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미국 사회에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데 크게 공헌하신 김문소 동문이 참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在美同門들의 업적은 미주총동창회만이 아니라 서울대인 전체의 자랑입니다. 선배의 결실이 후배의 기반이 되어 모교의 전통과 가치를 계승해나갈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周知하다시피 오늘날 세계와 조국은 모두 격심한 변화를 감수해야 하는 때를 맞고 있습니다. 한 세기 가까이 이어온 국제질서는 약화되고 있으나 새로운 질서의 정착은 아직 요원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추수가 아닌 파종의 때입니다. 현재의 불확실성을 견디면서 조국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를 지속하며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민족만이 장차 형성될 새로운 시대 속에서 위대한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창출하는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민족 최고의 교육기관인 서울대학교를 발전시킬 가장 큰 책임은 우리 서울대인들에게 있습니다. 미주 총동창회는 미주 사회에서 조국과 모교를 위해 헌신하며 동문의 龜鑑이 되어오셨습니다. 그 충정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든 서울대인들에게도 널리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총동창회장으로서 직접 방문하여 인사를 드려야 마땅하겠으나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대신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을 직접 뵙고 우애를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을 덜고자 3천 달러를 보내드리니 흔쾌히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주총동창회의 발전과 재미동문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6차 미주 평의원 회의

2016년 6월 23~25일, Boston



손재욱, 제13대 회장

이임사

손재욱 (가정 77)

존경하는 선 후배 동문 여러분께,

저희 회사의 한 사무실에는 한 벽이 설계도면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 다. 2015년 6월 평의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도 엄두를 내지 않았던 대청소를 시작하여 200여개나 되는 설계도면을 일일이 디지털 파일과 대조하여 99%를 버렸습니다. 평의원회의를 위하여 강의실을 정리하고 닦으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했던 때가 엇그제 같습니다.

2016년에는 회의와 Brain Network를 준비하느라고 밤을 새웠습니다. 첫 해에는 행사의 장소와 비용을 준비하고 두 번째 해에는 회의까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경험을 하는 듯 했습니다. 박형준 사회자가 농담 반으로 “회장이 밤을 새워 일하는 것을 보고 윤상래 차기회장님을 격려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이 귀에 생생합니다.

고대광실은 아니어도 그래도 그럴만한 집을 가지고 세를 들어사는 가부장에게 왜 집도 없으면서 스테이크를 먹느냐? 왜 남을 도와주느냐? 그 따지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스테이크를 먹어봐야 꿈을 가지고 발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미주동창회는 이제 사

람을 키우고 회원을 늘리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회장이 되면 누구나가 하는 말이기도 하여 이제는 새로운 감도 없습니 다만 현실의 도전을 직면하고 전략적인 대책을 세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동창회의 미래를 논하고 회원중대의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제 우리는 제 14대 회장님과 임원진들에게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고 그 분들께서 일을 하실 때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미주동창회의 미래는 80 학번이후의 후배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년 평의원회를 할 때에는 꼭 후배들을 한 분씩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님들은 종신이사로서 끝까지 미주동창회를 위해서 관심과 격려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제 13대의 임원으로 수고하신 편집위원님과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광고로 도와 주신 많은 동문님들께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 14대도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 1. 제14대 미주동창회 회장 윤상래 동문 취임 인사
- 2. 성낙인 서울대 총장 축사 / 서정화 서울대 총동창회 회장 축사
- 3. 제13대 손재욱 회장 이임사 / 제15대 회장 당선 신응남 동문 당선인사
- 4. 제26차 미주 평의원 회의 전체 기사
- 5. 제26차 미주 평의원 회의 전야제 (6월 23일) 기사
- 6. 이준근 교수 특별 강연 '동북아 국제정세와 한국의 안보'
- 7. 제26차 미주 평의원 회의 (6월 24일) 기사
- 8. 기조 강연: Jennifer Lind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North Korea Problem"
- 9. 제14대 미주동창회 집행부 예산 / 류성창 '동창회를 모이는 이유'
- 10. 제13대 미주동창회 결산
- 11. 지부 소식 / 뉴잉글랜드 동창회, 뉴욕지역 동창회
- 12. 지부 소식 / 뉴잉글랜드 동창회
- 13. 지부 소식 / 워싱턴 DC 동창회, 북가주 동창회
- 14. 동문동정 / 주중광 UGA 석좌교수, 허병렬 뉴욕 한국학교 이사장, 소프라노 강미자 초창 동창회
- 15. 동문동정 / 이민선 전장관 LA 한국 문화원 방문, 윤영희 (의대 84) 서울 아산병원 교수
- 16. 화보로 보는 제26차 미주 평의원 회의



신응남, 제15대 회장 당선자

당선 소감

신응남 (농대 70)

존경하는 선 후배 동문 여러분께,

God Bless SNUAA, USA! 지난 제26차 보스턴 평의원회의를 통하여, 우리가 바로 변화의 대상이요, 지금 이때가, 변화가 요구되는 때이며, 우리가 변화의 주체임을 공감해주시는 선후배 동문여러분.

저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각자 마음 속 깊이 자리 잡고있는 모교를 향한 사랑, 그 식지않은 열정을 함께 불러 깨우기로 합심한 보스턴 평의원 회의를 소중하게 기억하려 합니다. 높은 경륜으로 빛나는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우리의 미래인 후배동문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조국 뿐만아니라, 미주 한인 선구자로서, 역경을 헤치고 정착해온 서울대 동문들의 혁혁한 삶의 역사를 이 땅에 새겨가며, 또한, 조국과 모교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보기를 희망합니다.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최고의 보물은 바로 꿈이며, 그 꿈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또 내일의 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더하여, “노력하는 자가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자가 세계를 정복한다” 고 갈파하며, 동방의 광활한 영토를 확장하여 마침내 헬레니즘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유사 이래, 현 시대처럼 한민족이 세

계의 이목을 모으고, 인정받으며 번성할 때가 없었습니다. 그 성취의 일익을 감당한 서울대인들의 저력을 우리는 과소 평가하거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각 지부 간 그리고 동문 간의 소통을 통해, 단결하고 연합하며 확신과 신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본인은 14대 현 윤상래 회장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이어, 동문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회원 배가 운동, 5% 자산 증여 운동, 서울대 클럽 설립의 대업을 위해 함께 나아 갈 것입니다. 동창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반석 위에 세워감으로써 동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져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오래 오래 영광스럽게 불려지게 해야할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盡人事 待天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창회를 위해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동문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동문 한 분 한 분 이를 위해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며, 초석을 놓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창회를 만들어 갑시다. Yes, we can! Together, We can make SNUAA USA greater!

※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 글은 본 회보가 Copyright을 갖습니다.

- 17. 화보로 보는 제26차 미주 평의원 회의
- 18. 기고: 김현영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를 다녀와서', 정해민 '노후 준비를 위한 7가지 원칙'
- 19. 기고: 나수호 '문학 번역의 이론과 실제' / 이홍빈 영시 'Hello, being 'gingery'', 김수영 시 '동글은 어머니'
- 20. 기고: 김지영 "우리가 남이가" 그곳서 찾은 인연은.. / 홈커밍데이 참가 안내
- 21. 기고: 김창수 '노후를 위한 투자 원칙'; 이종호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
- 22. 기고: 백순 독후감 '조봉환 동문의 '궁정살인'을 읽고', 이종희 '잊을 수 없는 6.25 전쟁의추억'
- 23. 동문 동정: 김희봉 동문의 '안개의 천국' 출판 기념회 / 기고: 조동준 '뜻깊은가족 한국여행'
- 24. 이준근 교수 특별 강연 '동북아 국제정세와 한국의 안보'
- 25. 기조 강연: Jennifer Lind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North Korea Problem"
- 26. 2017년 모교 동문 골프대회 안내 / 제26차 평의원 회의의 안전한 기부자 명단
- 27. 동창회비 및 후원금 집계, 동창회비 및 후원금 납부 양식
- 28. 미주 동문 엽소록
- 29. 미주 동문 엽소록, 평의원 회비 납부자 명단 (7/25/2017 현재)
- 30. 제14대 미주 동창회 집행부 조직도, 2017 미주 지역 동창회 회장단 명단
- 31. 광고
- 32. 광고

제26차 미주 평의원 회의

2016년 6월 23~24일, Boston



제26차 미주 평의원 회의가 지난 6월 23일에서 24일 양일간 보스턴 근교 Hilton Boston/Woburn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미주 9개 지부에서 선출 평의원 46명, 당연직 14명, 종신이사 8명 등 모두 68명의 평의원이 참가했다.

윤상래(수의대 62) 동문이 손재옥(가정 77) 동문에 이어 제14대 미주동창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를 보스턴에 두고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봉사한다. 윤상래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미주 동창회관 건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 동창회 기금 육성, 동창회보 발전 위원회 구성, 장학위원회, 나눔위원회, 브레인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미주동창회가 미 대륙에서 영구히 존속하고 발전할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서정화 총동창회장 회장은 축하 영상메시지에서 "미주 동창회의 조국과 모교를 위해 헌신하는 충정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든 서울대인에게 공유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격려사를 했다.

성낙인 모교 총장이 변주선 총동창회 부회장, 류연수 부회장, 이효원 상임이사, 김경태 전무와 함께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성 총장은 축사에서 "모교 발전을 위한 미주 동문의 격려와 성원에 늘 감사하다"며 "우리의 미래상인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 하는 대학', '국 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 '세계와 함께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차기 회장 선거에서는 뉴욕지부의 신응남(농대 70) 동문이 당선되었다. 신 동문은 14대 회장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이어, 회원 배가 운동, 5% 자산 증여 운동, 서울대 클럽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23일 전야제(기사 참조), 24일 평의원 회의 오전, 오후 세션(기사 참조)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23

일 전야제가 있기 전 한국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 초빙된 이준근 교수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동북아 국제 정세와 한국의 안보"라는 주제로 두 시간여에 걸쳐 시종 열띤 강연(P 6 내용 참조)을 했다. 최근의 한반도 안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참석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24일 저녁에는 이번 행사의 주요 연사(Keynote Speaker)로 초빙된 다투머스(Dartmouth) 대학의 Jennifer Lind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Jennifer Lind 교수는 동북아 정세에 정통한 소장 학자이다. 이날 강연(P8 내용 참조)에서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간 국제 정치, 군사 전략 측면의 역학 관계에 관해 깊이 있게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참석자들과 많은 질의응답이 오갔다.

서정화 모국 총동창회장이 수여하는 표창패는 학술상에 윤도명 (공대 65), 이강원 (공대 66), 봉사상에 정해민 (법

대 55), 정정욱 (의대 60), 참여상에 김문소 (수의 61) 동문에게 돌아갔다. (아래 전체 수상자 참조)

코네티컷 동창회가 새 지부로 인준받았다. 유시영(문리 68) 동문이 지부 설립을 요청해와 이번 평의원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미 전역(캐나다 미 포함)의 주요 26개 지역에 동창회가 있게 되었다.

제14대 집행부는 1년 예산을 총수입 \$237,000, 총지출 21만 달러로 책정했다. 지난 제13대 집행부는 지난 회기 총수입 \$262,818.84, 총지출 \$220,290.30으로 \$42,526.54 수익금을 냈다. (P 9, 10 참조)

윤상래 회장은 26차 평의원 회의가 끝난 후, 인사말에서 "제14대 집행부는 이번 평의원회의가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 모든 평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미주 동창회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임원 개개인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서정화 총동창회장 표창패
학술상 윤도명 (공대 65), 이강원 (공대 66), 봉사상 정해민 (법대 55), 정정욱 (의대 60), 참여상 김문소 (수의 61)

▶ 서정화 총동창회장 공로패
김병연 (공대 68) 남가주 지부 회장

임희례 (간호 73) 북가주 지부 회장
김도명 (농대 70) 뉴욕 지부 회장
정태영 (문리 71) 뉴잉글랜드 지부 회장
정승규 (공대 60) 시카고 지부 회장
안선미 (농대 65) DC 지부 회장
최정웅 (공대 64) 필라 지부 회장

이건일 (의대 62) 의대 총동창회 회장
▶ 손재옥 미주동창회장 표창패
이영진 (공대 76), 정국희 (미대 88)

▶ 손재옥 미주동창회장 표창패
조동건 (공대 69) 플로리다지부 회장
오기영 (공대 73) 달라스지부 회장

김한섭 (경영 93) 유타지부 회장
이성숙 (가정 74) 재무국장
황선희 (공대 74) 사회봉사 부장
이상봉 (문리 65) 편집위원
현명역 (공대 75) 편집위원
지재원 (사대 68) 편집위원

제26차 미주 평의원 회의, 전야제

2016년 6월 23일, Boston



정태영 (문리 71)

환영사

존경하는 미주 동창회 평의원님,

먼길에 이곳까지 왕림해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성낙인 총장님, 동창회 변주선 류연수 부회장님, 한국에서 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보스턴까지 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모두 남다른 동창회에 대한 애정과 열정의 표출이라고 생각하며 저희 뉴잉글랜드 동문들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에는 최고의 지성들이 많습니다. 이 별로 크지 않은 대도시에서 뛰어난 서울대인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1950년대 - 70년대에 서울대인으로서 유학 이민 정착의 모습이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수많은 서울대인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정착하면서 서울대인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윈의 갈라파고스처럼 이곳 서울대인들은 미국에서도 외딴 섬에 떨어진 하나의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며 잔잔하고 은은한 빛을 내면에 간직하

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게 저 스스로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동문님들을 보면서 이분들로부터 문방사우 옆에 놓여진 난(蘭) 같은 그윽한 기품을 느낍니다. 저는 이러한 고매한 인품과 청자연적(靑瓷硯滴)의 향기를 환영의 선물로 드립니다.

저는 어느날 문득 "서울대가 내 인생에 있어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짧은 젊은날의 한 때 였지만 그것은 자랑스러운 훈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가장 공부를 잘하여 서울대학교라는 최고의 대학에 들어와서 '서울대인'이라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평생 월계관처럼 머리 위에 쓰고 살아가 수 있게 해준 자부심을 안겨준 영광이자 표창입니다. 인생에 이보다 더 한 이력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슴 한 가운데는 자랑스럽게 빛나는 훈장이 걸려 있습니다. 서울대인이라는 훈장입니다. 이것은 마치 젊었을 때 전장에서 혁혁한 무공으로 훈장을 받은 병사가 노년에 벽에 걸려 있는 훈장을 바라보며 훗날 미소를 머금은 것과 같습니다. 저는 가끔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우리 자녀에게 물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넓고 큰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당당함을 갖고 이곳에 오신 동문님들을 크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 회장 정태영



미주동창회장 표창패 이영진, 조지아 회장 대리수상



미주동창회장 표창패 정국희, 최경선 동문 대리수상



미주동창회 공로패 수상자, 좌측에서두번째 이성숙 재무국장, 황선희 사회봉사 부장, 이재원 편집위원

전야제는 23일 금요일 6시부터, 황선희 (공대 74) 사회봉사 부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손재옥 회장, 윤상래 회장의 환영사와 정태영 뉴잉글랜드 지부 회장의 환영사 (환영사 참조)가 있었다.

손재옥 회장의 미주 총동창회 13대 임원단의 소개 후, 모국 총동창회에서 보내온 작년에 제작된 70년 동안의 서울대 발전의 활동과 방향을 한국의 역사적 사건들과 같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대 70년 기념 동영상 상을 시청하였다. 서울대 총동창회 류연수 (농대 61) 부회장은 격려사에서 해외 동문이 가장 많은 북미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국 총동창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영사를 하고 있는 윤상래 미주동창회 회장

매년, 미주 동창회의 평의원 회의에 참석사절단을 파견하는 모국 총동창회에서는 올해 변주선 (사대 60) 동창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류연수 (농대61) 부회장과 김경태 전무를 예년과 같이 보냈다. 토요일 평의원 회의 점심을 '서정화 총동창회장의 평의원 환영 오찬'으로 명명하여 제26차 평의원 회의를 후원하여 주었다. 이어서, 미주 손재옥 회장의 봉사와 참여부분의 2명의 표창패와 본부 임원 5명의 공로패와 5개 지역 동창회 전직회장 감사패 수여식이 있었다. (수상자 명단 참조)



13대 회장단 소개

부페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보스턴 14대 임원진이 특별히, 이번 평의원 회의를 위해서 잡아온(?) 랍스터의 상품이 걸린 래플 추첨이 진행되어서 어느 동문은 뉴잉글랜드의 특산물(?)을 상품으로 받는 행운을 누렸다.

참석 평의원과 지부 소개는 황선희 사회자의 제안에 따라 참석한 모든 테이블의 평의원들이 한사람씩 일어나 짧게 본인 소개를 하며, 참석자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각 지역 동문들과 같이 한 테이블에서 소소한 대화와 웃음으로 화기에

애한 분위기가 되었다. 이번 평의원 회의에는 차차기 후보가 있는 남가주에서 긴 비행시간에도 불구하고,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도 할겸 11명이 참석하였다. 8명이 참석한 뉴욕과 13대 손재옥 회장단의 임원을 포함한 필라델피아 지부와 14대를 이끌 보스턴 지부의 회장단과 임원들로 전야제에는 약 70명의 동문이 참석하였다.



격려사를 하고 있는 류연수 총동창회 부회장



환영사를 하고 있는 정태영 뉴잉글랜드 지부 회장

지부 사업 보고는 김병연 (공대 68) 남가주 회장의 인사말과 활동보고, 뉴욕지부 김도명 (농대 70)회장의 연발 송년회의 동영상 소개, 보스턴 지부 정태영 (문리 71) 회장의 뉴잉글랜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보스턴 지부는 특별히 장학금 수여자가 참석하여 수상하였으며, 장학금을 제공한 윤상래 회장을 비롯한 보스턴 동문들과 사진 촬영을 했다. 예정된 시간을 넘긴 전야제는 황선희 사회자의 폐회로 1차 마무리되었다.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은 장소를 옮겨 '지부회장단 회의'를 했다. 지역동창회와 미주 동창회 간의 대화 및 통신 (회장과 회보편집), 회원명부 및 전문분야 관리 (표준화), 재정관리 및 세금보고 (재무국장 감사), 사회봉사 (한인사회와 미주류, 사회봉사 project), 후원금 모금 (회보, 장학금 모금, 모교 발전기금) 등을 주제로 손재옥 13대 회장과 각 지부 회장들 간 회의가 늦게까지 진행되면서 전야제의 하루를 끝냈다. <기사제공: 허유선 편집위원>



이준근

이화여자 대학교 겸임교수

동북아 국제정세와 한국의 안보

특별 강연

1. 서론: 한국이 당면한 국제정치 상황

21세기 한국이 당면한 국제정치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유동적이다. 마치 19세기 말 20세기 초 조선이 국권을 찬탈당하고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시절을 방불케 한다. 우선은 중국의 도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한중 관계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이 전쟁을 해야 할지도 모를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전쟁을 연구한 학자들은 지구위에 발생했던 전쟁 중 90% 이상이 국경을 접한 나라들이 행했던 역사적인 자료를 밝히고 있다. 한국과 전쟁을 할 확률이 있는 두 번째 나라는 일본이다. 지금 일본 역시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전쟁사를 공부한 학자들은 역사상 모든 전쟁 중 10%가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는 나라들 사이에서 발생했음을 밝혀내었다. 아마도 일본은 한국과 전쟁할 확률이 중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일지 모른다.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다면 한국과 전쟁을 벌일 개연성이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보아도 된다.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사실 역시 한국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과 지식인들이 트럼프 개인에 대한 감정적인 반감과 적대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중 외국 중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었을 것이다. 북한 핵과 군사적 위협은 대한민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이 이같은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한 정부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처할 훌륭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역시 한국의 처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미중 두 나라가 경쟁하는 것은 두 나라가 서로 적대적이기 때문은 아니다. 기왕의 패권국인 미국의 힘에 대해 신흥 강대국 중국의 힘이 도전하고 두 힘이 충돌하고 있는 결과다. 두 나라의 경쟁에서 한국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올바른 국가전략과 대중 대미 정책이 확립되지 못한 결과다. 국가주의 상승 세제화 퇴조 현상, 역시 한국이 당면한 쉽지 않은 문제다. 세계화의 무드에 성공적으로 올라타기에 한국은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는데 2016년 영국의 EU탈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시진핑, 푸틴 등 민족주의적 지도자들의 출현 역시 한국이 당면할 어려운 국제상황이 아닐 수 없다.

2. 한국에 대한 최대의 위협: 북한 핵전력의 본질

김정은 정권에 대한 한국과 세계의 인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 사람들 일부와 정부 지도자들은 김정은 정권을 또 하나의 유사한 북한 정권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높지만 국제사회의 김정은에 대한 인식은 많이 다르다. 이미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한 직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지는 김정은에 대한 특징을 발행했었는데 표지의 주제어는 “김정은에 대해 이야기 해 볼 필요가 있다”(We need to talk about Kim) 였고 그 내용은 “김정은이 영원히 생존할 수는 없



다. 어떻게 그를 교체 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는 -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잊혀진 그리고 처절하게 살고 있는 인민들을 위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이었다. (The Economist 2011.12. 31) 국제사회는 이미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는 순간부터 그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김정은을 조속한 시일에 제거해야 할 위험인물로 보고 있었다. 김정은의 지난 5년 행적은 이코노미스트지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국민들이 굶겨 말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투구한 김정은의 북한은 이제 곧 미국 본토마저 핵 공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지난 5월 14일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 7월 4일의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 주었다. 북한이 왜 그토록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에 대해 한국의 일반인들은 물론 정책 결정자들조차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오히려 많은 한국인들은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라고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기에 올바른 전략이 나오기 어렵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보유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이다. 북한의 핵개발 노력은 핵전략의 기본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 김정일은 “수령님 대에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통일 대 사변을 주도적으로 맞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북한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마음 놓고 도와 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에게 서울을 구하기 위해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난감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키신저(Henry Kissinger)박사는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이 미국에 도달하는 핵을 갖추는 날 북한은 미국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맺는 전략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다음 북한은 한국을 핵 공격 할 것인가? 그럴 리 없다.

북한은 미국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면 한국을 말로 위협할 것이다. 유명한 국제정치 학자 한스 모겐소 교수는 북한이 핵무장에 성공한 후 한국이 당면할 전략 상황을 다음처럼 요약하고 있다.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1.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 2. 미리 항복을 하는 것.” 북한이 핵무장을 갖추기 이전에도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극도로 두려워한 한국이 핵무장을 갖춘 북한에게 대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북한의 핵무장은 북한판 평화통일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체계가 완성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은 미국의 일보 개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될 지도 모른다.

3. 미국의 대 동아시아 전략과 대 북한 전략

북한의 핵전략은 고전적인 국제정치 이

론을 정확히 따르고 있는 전략이지만 북한이 원하는 바를 세상이 그대로 허락하지는 않는다. 북한 핵문제를 자신이 지도하는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는 미국은 결코 북한 핵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까지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가능했는지 모른다. 아직 북한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방치할 경우 자신의 임기 중 북한 핵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상황에 당면한 상황이 되었다. 트럼프는 물론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이같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을 것이다. 2017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말하자 아직 당선자 신분이었다던 트럼프는 ‘그럴 일은 없을 것’(It Won't Happen)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나 북한 핵보다 트럼프에게 더 중요하고 큰 문제는 중국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분노한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들에게 직업을 찾아다 주어야 한다는 책무가 있다. 트럼프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은 중국, 일본,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손해를 본 나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 인해 미국은 6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300만 개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정책 과제 중 하나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과 “무역 전쟁” 혹은 “경제 전쟁”을 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문제와 북한 문제를 연계시키는 전략을 취하기 시작한다.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정책과 견해를 자주 밝히는 트럼프는 3월 17일자 트윗에서 “북한은 대단히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수 년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중국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한 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중국을 활용할 계획을 세운다. 4월 6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관건을 쥐고 있으니 북한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중용, 압박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군사력을 집결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작전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의 언론들과 평론가들은 김정은의 암살, 북한 정권의 궤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특히 요인 암살용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무기체계인 드론(Gray Eagle)을 한반도에 배치 김정은을 압박하고 있다. 항공모함 2척이 동해 바다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미국의 폭격기들이 북한을 향한 위협 비행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걸로는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북한 체제의 내구력은 많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은 북한이 스스로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당장 군사력을 (p24 계속)

제26차 미주 평의원 회의

2016년 6월 24일, Boston

제26차 평의원 회의가 24일 토요일 오전 9시 보스턴 근교 Wobum에 소재한 Hilton Boston/Wobum Hotel에서 열렸다. 황선희 사회봉사부장의 사회로 열린 회의는 제13대 손재옥 회장(가정 77)의 개회 선언에 이어 국민의회, 교가 제창에 이어, 6.25를 하루 앞두고 한국전쟁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었다. 손재옥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윤상래 (수의 62) 차기 회장의 환영사와 정태영 뉴잉글랜드 지부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서정화 총동창회 회장(법대 55)은 멀리 한국에서 영상을 통해 평의원회의를 격려했다. 오전에는 제25차 평의원 회의록 낭독 및 인준, 지난 1년 동안의 사업보고와 여러 재무 관련 보고 및 감사 보고 후에 다양한 토의 및 논의가 이뤄졌다. 점심 식사 후, 평의원회의가 속개되어 차차기 (제15대) 회장 선출 및 제13대와 제14대 회장의 이취임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진행된 회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들을 담아 간략하게 요약한다.

<오전 세션>

▶ 성원 보고 전체 평의원 참석자가 61명, 프록시 (대의원) 27명이 참석해 의사표결 정족수를 넘어 정식으로 개회가 선언됐다.

▶ 13대 손재옥 회장, 14대 윤상래 차기 회장, 정태영 뉴잉글랜드 지부 회장의 환영사와 총동창회 서정화 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 2016년 6월에 필라델피아에서 실시한 제25차 회의록이 황선희 사회봉사부장에게 의해 낭독됐다.

▶ 2년간 사업 보고 = 손재옥 회장은 IRS 감사에 대비한 내부감사 보고와 포상자들 명단을 보고를 하였다. 올해 Brain Network는 사정상 뉴잉글랜드에서 생략하고 내년엔 더 알찬 행사를 기대한다 하였다.

▶ 회보 편집위원회 보고 = 김정현 편집위원장이 “처음엔 17%의 동문 기고로 시작했는데 마침내는 83%의 동문들 기고로 채울 수 있었다. 새롭게 시도한 'My story and Your story'에 67명의 동문이 참가하여 좋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지부소



개난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25개 지부 중 11곳을 소개했다. 13대에 회보를 12만 부를 찍었고, 2000만 페이지를 넘게 인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장학위원/모교발전기금 위원회 보고 = 손재옥 회장은 “매년 모교에 \$1,000 장학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 나서서 돕는 평의원들이 많지 않아 일하는데 힘들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홈페이지 보고 = 김원영 IT 위원장은 “홈페이지 운영이 미비했다.” “홈피 성공여부는 방문자로 하여금 방문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쉽지 않았다.” “운영자 1인의 노력으로 이루기 어려운 부분이다. 운영 위원회를 두어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홈피 관리 비용이 지역 실정에 맞아야 한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때가 왔다.”고 보고했다.

▶ 멘토링 프로그램 = 손재옥 회장은 멘토링 프로그램 보고에서 서울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한 김아라 (경영대 10학번) 동문을 소개하였다. 김 동문은 “작년 11월 8일부터 손 회장님 밑에서 Accounting 분야 일을 배우고 있는데 실무뿐만 아니라 인생 사는 법도 많이 배우고 있다. 계속 후배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 회칙위원회 보고 = 한재은 회칙위원장은 “지난 1-2년 동안 옛날 회의록을 모아 영문으로 번역했고,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월에 온라인 미팅으로 통과된 나눔위원회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수록했다.”고 보고하였다.

▶ 나눔위원회 보고 = 황선희 사회봉사위원장은 새로 발족한 나눔 위원회를 소개하며 “위원들을 위촉하는 단계이다.” “동문 중에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을 물질적, 지식, 서비스 면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 특별사업 보고 = 허유선 특별사업국장은 작년 10월에 있었던 서울대 70주년 홈커밍데이 모교방문 행사 (2박 3일)를 이끌면서 모교와 동문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난 회보에서 “My story our story” 특집 연재에 미주 동문 약 60여 분이 소개되었다. 향 후에는 한글/영문이 함께 기재된 컨텐츠를 만들어 자손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했다.

▶ 재무 보고 = 미주 총동창회 수입은 대부분 회비와 기부와 광고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회비를 1,200명 (9만 불)을 책정했으나, 931명 (\$69,845)이 내어 예산에 미치지 못했으나 작년대비 1% 증가했다. 후원금 총액은 교육과 자선(charity) 포함하여 52% 증가하였으나 광고 수입은 18% 감소했고, 전체 수입은 20% 증가했다. 지출보고에서 제일 큰 항목은 회보 발행이며 전년에 비해 6% 증가, office 비용이 11% 증가하였다.”라고 보고했다. 항목별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 감사 보고 = 박영철 감사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18일까지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13회 회장단 재무회계 보고서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작성됐다고 보고했다.

▶ 토의 안건 (손재옥 회장)

1. 새 지부 인장: 유시영 (문리 68) 회장이 코네티컷 지부 형성을 요청하였고 회의를 통해 인준되었다.

2. 나눔위원회 발족에 대해서는 후에 나눔 위원장이 선출되고, 사업을 만들고 현 회장과 차기 회장이 일임하여 결정, 인준할 것을 동의하였다.

<오후 세션>

오인환 인선위원장의 사회로 차차기 (제15대)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었다. 총 66명의 평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투표에서 이미 후보 등록을 마친 남가주 지부 이서희 (법대 70) 동문과 뉴욕지부 신용남 (농대 70) 동문 외에 floor nomination을 받은 하트랜드 지부 이상강 (의대 70) 동문 등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각 후보가 약 7분씩 차례로 정견 발표를 마친 후 투표가 진행되었으나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상위 득표를 얻은 뉴욕 신용남 후보와 하트랜드 이상강 후보로 재투표를 실시했다. 재투표 결과 총 66명 중 신용남 후보가 34표, 이상강 후보가 32표를 얻어 두 표차로 신용남 후보가 제15대 차차기 회장으로 결정되었다. 신용남 차차기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투표를 마치고 제13대 손재옥 회장이 이임사를 했다. 제14대 회장단에게 동창회기를 인계하였다. 제14대 윤상래 회장의 취임사 후, 감사 위원으로 뉴잉글랜드에서 박영철 동문, 뉴욕에서 김도영 전 회장에게 추천을 부탁했다. 새 집행부는 1년 예산 수입을 \$237,000, 예산 지출을 \$210,000로 책정했다.

14대 회장단 사업 계획안

1. 회보 발전과 개선 2. 동창회관 설립 위원회 구성 3. 기금 육성 *SNJAAUSA (Century foundation) 4. 모교 발전 기금 5. 나눔, 봉사, 교육 등의 가치있는 동창회 사업

마지막으로 윤상래 회장이 14대 임원을 소개한 후, 사회자의 폐회 선언으로 4시간에 걸친 제26차 평의원 회의를 마쳤다.

<기사 제공: 편집위원 한정민>





Jennifer Lind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North Korea Problem”

By Jennifer Lind, Department of Government, Dartmouth College

The problem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has vexed the world for more than a decade. Despite all the different tactics and policies that Seoul and Washington have attempted, and all the different agreements they have made with Pyongyang, North Korea remains committed to having nuclear weapons.

Many people view China as the key to solving the North Korea nuclear problem. They say China has the economic and diplomatic leverage over North Korea to get it to change its behavior, and we just need to convince China to use that leverage. But this is a false hope: that although China does indeed have a great deal of leverage, it will not use it to force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capability.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worry about Nor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because of its unsettling foreign policy behavior. North Korea engages in several alarming and risky behaviors such as the assassination of Kim Jong Nam, the leader’s half brother, in the Kuala Lumpur airport this year. In the past it has attacked South Korea, such as the Cheonan sinking, and the shelling of Yongpyeong island in 2010. And of course North Korea has a long history of terrorist attacks against South Korea (such as in Burma in 1983, and the KAL airliner, which NK agents blew up in 1987). Pyongyang thus has a very worrying history of violent behavior.

North Korean capabilities are also growing. It is improving its immediate-range missile capabilities, is improving the explosive yields is can generate with its nuclear weapons, and appears committed to developing the ability to target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with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f North Korea acquires the ability to strike not only Japan and South Korea but also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with WMD, this is a game-changing moment for US foreign policy

With the NK nuclear problem growing more serious, what if any solutions can we see to the problem? One solution that’s been proposed is to return to what was called the “Sunshine” policy (or what has become known, under Moon Jae-in, as the “Moonshine” policy).

Kim Dae-jung pursued the sunshine policy starting in 1998, aimed at softening North Korean attitudes, improving trust, and improving overall relations. This policy supports initiatives such as the Kaesong trade zone, in order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programs such

trade zones could be a very sensible way to integrate the two countries, to develop the broken North Korean economy, and to lessen the shock of unification someday.

However let’s also be clear that a Moonshine Policy should not be seen as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namely, as a policy that will lead NK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It was during the previous sunshine policy that North Korea energetically pursued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North Korea is pursuing is nuclear program based on strategic interests, and a Moonshine



as family visits between separated relatives. The “sunshine” policy was named after the story from Aesop’s Fables – in which the sun made a bet with the wind the he could get a traveler to shed his cloak with warmth (rather than coldness).

Before his election,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reportedly favored a return to the Sunshine policy in his policy toward Pyongyang. One example is his proposal for a joint Olympic team. Many people expect President Moon to move toward a softer policy with respect toward North Korea.

Let’s be clear, there could be very sensible reasons to pursue such a policy. A joint Olympic team would be a deeply meaningful and positive gesture. Family visits are very special to people in both countries. Economic initiatives such as special

policy would not change those basic interests.

Such a policy would also be terrifically difficult politically to pursue – for example, if North Korea were to test nuclear weapons again or kill more South Koreans, many South Koreans would put a lot of pressure on Moon’s government to end these conciliatory policies. So the Moonshine policy is not a solution.

That brings us to China. The Trump White House sees China as key to solving the problem. “China is very much the economic lifeline to North Korea,” Donald Trump has said. “If they want to solve the North Korean problem, they will.”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many others, argue that China needs to put pressure on NK to behave in a less aggressive manner, and to pressure it to return to 6-Party disarmament talks.

To be clear: those who argue that China has a lot of leverage over China are correct. Trade with China comprises 90 percent of North Korea’s trade, including vital imports such as food and oil. And China has not fully complied with UN sanctions on North Korea. China did cut its coal imports from North Korea –but it turns out just increased its imports of iron ore to make up for it. Chinese iron ore imports from North Korea are up 300 percent relative to last year. So even if China just complied with UN sanctions, this would be a very important step.

North Koreans set up businesses in China, and form joint ventures and other relationships with Chinese companies in order to connect to the global economy. If China wanted to pressure NK, it could do so by cracking down on Chinese firms doing business with North Korean firms in China. When the Americans talk about China’s influence and obligation to pressure North Korea, the Chinese disagree strongly. Last month in Beijing, I attended a conference with several Chinese scholars and diplomats. They told me, “China has no leverage to convince this foreign nation to stop its nuclear program.” But that’s not true. China has tremendous leverage; it just doesn’t want to use it in this case.

That brings us to the question of why? When most people talk about China and North Korea, they assume that China, like the United States, has a strong interest in stopp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n other words, they assume that Chinese interests and US and South Korean interests are the same. This is a fundamental error.

Now of course, China does not like North Korea having nuclear weapons. It’s an unpredictable state, which frankly has very prickly relations with Beijing, and it lacks the wealth or political stability to be a careful steward of nuclear weapons. It’s true that China would very much prefer that North Korea does not have nuclear weapons.

But aside from that, China sees the North Korea problem very differently than the United States. First, as was made very clear to me while I was in Beijing, the Chinese diagnose the cause of the problem very differently. Washington sees North Korea as a dangerous rogue (Continued to p25) state that broke international law in its pursuit of nuclear weapons.

제14대 회장단 예산

수입 (7/1/2017-6/30/2018)	
Membership Fee	\$80,000
Donations under \$500	\$25,000
Donation more than \$500	\$50,000
Pyong Eui Won Membership Fee	\$7,000
Scholarship	\$5,000
Alma Mater Development Fund (모교 발전기금)	\$4,000
Local Chapter Support	\$20,000
SNUAA in Korea	\$6,300
Advertisement	\$40,000
Total Income	\$237,300

지출 (7/1/2017-6/30/2018)	
Newspaper (Monthly Journal)	
1) Printing	\$30,000
2) Deliveries	\$30,000
3) Editorial Staff	\$33,000
Sub-Total	\$93,000
Office Administration	
1) Administrative Expense	\$23,000
2) Advertisement Commission	\$8,000
3) Office Supplies	\$2,000
4) Travel	\$12,500
5) Legal and Accounting Expenses	\$1,000
6) Website Maintenance	\$6,000
7) Computer Software	\$2,000
8) Postage	\$2,500
9) Staff Meeting	\$4,800
10) Bank Charges	\$900
Sub-Total	\$62,700
Support to Local Chapters	\$2,500
Support to SNUAA in Korea	\$11,000
Annual Conference (제26차 평의원회)	
1) Food	\$25,000
2) Transportation	\$2,000
3) Lodging	\$2,700
4) Entertainment	\$1,400
5) Staff Help	\$2,000
6) Equipment	\$1,750
7) Stationery	\$1,200
8) Promotion	\$1,500
9) Educational	\$1,750
Sub-total	\$39,300
Donation to SNU alma Mater Development Fund	\$1,500
Total Expenses	\$210,000
Balance: \$237300 - \$210,000	\$27,300
Other Projects:	
Brain Network (for June 2018)	\$5,000
Charity (2017. 7. 1. – 2018. 6. 30.)	\$10,000
Website Development	\$5,000
Rainy Day Fund	\$7,300



류성창 (사대 93)

<특별기고>

동창회를 모이는 이유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방법을 활용하는 듯 하다. 그 한 가지는 인생의 방향이나 가치의 기준을 인간 개인의 외부에서 찾아 들어오는 방식으로, 교육학의 용어를 빌려 이름을 붙여 보자면 외재적 인생가치(the extrinsic value of life)라 명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인생을 들여다 보면, 인간 삶의 방향은 한 개인 자신의 내부에서 발현되는 동기, 관심, 방향성 등에 근거하기 보다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들, 예를 들면, 주변에서 인정하는 직업, 사회문화적으로 당연시되는 인생의 행로, 다양한 이익의 추구 등에

먼 타지에서서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대학 동창회 모임을 가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한국의 교육단계에 있어서, 대입과 같은 큰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도구적이고 외재적인 공부 가 아닌, 그야말로 세상이 궁금하고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순수한 공부, 이익을 위해서 만난 친구가 아닌 그야말로 우정을 위해서 묶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대학시절 친구들과 함께 진리를 탐구하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만약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인간 행복의 근본을 ‘공동체적 테오리아에서 찾는 것이 맞다면, 대학 동창회를 찾아 가는 발걸음은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찾아 가려는 행복에 대한 향수를 찾는 발걸음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 번 그때와 같이 가



의해서 결정되게 되며, 결국 인간의 삶은 인간 외부의 기준에 의하여 재단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장 인간다운 행복을 추구해 보고자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보기 위한 아쉬움의 발걸음은 아닐까?

이와는 달리, 인생의 방향성을 한 인간의 내면에서 발견하는 접근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역시 용어를 빌려 불러 보자면 내재적 인생가치(the intrinsic value of life)를 추구하는 삶이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른다. 한 개인의 내부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치, 기준, 방향 등에 따라 인생의 향로가 추진되고 또한 매 순간 이루어지는 자신의 판단과 주관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재검토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확히 같은 시절, 같은 내용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시공간으로 연결되어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하나의 탐구 공동체로 묶여, 가깝고 먼 우정으로 서로 연결되어 세상을 탐구하던 동문들을 찾는 일은 그 자체로 가치로운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사업에 이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 업무에 필요한 인간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의 소위 외재적인 이유로 인하여 동문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인생을 되돌아보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한 내재적인 가치와 즐거움을 향수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바라는 이익이나 효과가 없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마냥 동문회로 향하는 관심과 발걸음 또한 복되고 고귀한 일이라 생각해 본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러한 목적에 따라 충실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가장 옳은 방식으로 인생이 진행된 것이라는 점을 역설한 바 있다. 또한 인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공동체적 테오리아(theoria, θεωρία, 이론적 탐구 혹은 관조)’ 혹은 쉽게 말하면 ‘친구와 같이 공부하는 삶’을 거론하며, 다른 이와 함께 궁금해서 하는 공부, 호기심을 위해서 추구하는 자유로운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궁극적으로 가장 인간다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논하기도 하였다.

특히 바쁘고, 어려운 시절 먼 타국에서 동문회로 모이는 따뜻하고 복된 마음들은 인생의 내재적인 가치와 궁극적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인간다운 인간들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글쓴이: 류성창 (사대 93입: 하버드대학교 교육철학 박사, 현 국민대학교 교수)

제13대 집행부 결산

수입 · 지출 요약 as of June 18, 2017			
이월금 (제13대 1차년도)	24,786.63		
제13대 2차년도 수익	42,526.54		
이월금과 2차년도 수익금	67,313.17		
모교발전기금 (2년간)	(10,550.00)	- 다른 은행구좌에 입금: 수입 (\$19,400+\$2,150) - 지출 (\$1,1000)	
종신이사회비 (2년간)	(15,000.00)	- 다른 은행구좌에 입금 (5명 종신이사)	
이자 (2년간)	1,236.06)	- 다른 은행구좌에 입금: 이자 (모교발전.종신이사)	
Accounts Receivable	(10,280.00)	- 아직 수금하지 못한 금액: 광고비와 지부 분담금	
2차년도 수익금 (6/18/17)	30,247.11		
미리내신 회비	17,100.00		
현금잔액	47,347.11		
Brain Network	700.00	총 \$47,347.11 (6/18/17)은 제14대에게 해당 사업내역과 함께 이월금으로 전달됩니다. 차 후에 발생할 변동액은 다시한번 감사를 거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Scholarship	7,600.00		
Charity	14,125.00		
미리내신 회비	17,100.00		
잔액	7,822.11		

수입 (Jul. 1/2016~Jun. 18/2017)			
5.00	Donation		
5.01	Membership Fee \$75	일반회비	69,845.00
5.02	Regular support under \$500	후원금 (<\$500)	18,800.00
5.03	Special Donation \$500 이상	후원금 (\$500=> <=)	55,350.00
5.04	Permanent Membership	종신이사회비	15,000.00
5.05	Annual Board Meeting Fee	평의원회비	6,917.00
Total 5.00	Donation	모금	165,912.00
5.20	Designated (Education)		
5.21	Scholarship	장학금	9,600.00
5.22	Brain Network Seminar	Brain Network	700.00
5.23	Fund for Alma Mater	모교발전기금모금	19,400.00
Total 5.20	Designated (Education)	교육후원금	29,700.00
5.30	Designated (Charity)	자선금	6,125.00
5.40	Supporting Fund Income From		
5.41	Chapter - Local	지부분담금	21,900.00
5.42	SNUAA Korea	모교동창회. 지원금	6,000.00
Total 5.40	Supporting Fund Income From	27,900.00	
5.50	Advertisement		
5.51	Business Ad (small)	디자인 광고 (소)	15,160.00
5.52	Business Ad (Big)	디자인 광고 (대)	15,700.00
5.53	Website Ad	웹광고	1,220.00
Total 5.50	Advertisement	광고후원금	32,080.00
5.90	Other Income (이자)	작년 이자 (\$136.22)	1,099.84
Total Income			262,816.84
Gross Profit		총수익금	262,816.84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l: 978-835-0100
news@snuaa.org / www.snuaa.org

지출 (Jul. 1/2016~Jun. 18/2017)			
6.00	Newspaper		
6.01	Printing	동창회보 인쇄	25,512.99
6.02	Design	동창회보 디자인	11,065.00
6.03	Delivery	동창회보 우송비	26,522.11
6.04	Article Collection	기사모집 비용	13,575.00
6.05	Editorial	편집부 비용	30,050.74
Total 6.00	Newspaper		106,725.84
6.10	Office		
6.11	Administrative Expenses	행정 비용	29,536.92
6.12	Advertisement Collection Comm.	광고수집 비용	5,340.00
6.13	Office supplies	사무용품	268.70
6.14	Travel	여행 비용	2,349.06
6.15	Entertainment	엔터테인먼트	0.00
6.16	Accountant Fees	회계사 비용	900.00
6.17	Website Maintenance	웹디자인 비용	5,000.00
6.18	Promotion Expense	미주동창회 광고	600.00
6.19	Postage and Delivery	기타 우편료	2,261.10
6.20	Printing and Reproduction	기타 인쇄비용 (봉투)	2,368.39
6.21	Staff Meeting Expense	직원미팅 비용	725.52
6.22	Bank Charges	은행 수수료 (카드사용 수수료)	545.36
Total 6.10	Office	사무 비용	49,895.05
7.03	Support to Local Chapters	지부 보조금	1,000.00
7.04	Support to SNUAA Korea	모국동창회 지부금	11,000.00
7.10	Annual Conference		
7.11	Food	평의원회 음식	24,764.97
7.12	Transportation	평의원회 교통	3,310.96
7.13	Entertainment	평의원회 엔터테인먼트	3,105.90
7.14	Staff Help	평의원회 행사보조	2,130.00
7.15	Stationery	평의원회 사무용품	1,958.38
7.16	Award	평의원회 포상비	1,399.20
Total 7.10	Annual Conference		36,669.41
7.20	Charitable Donation	자선기부 (흑인지역, 탈북자)	2,000.00
7.30	Education		
7.31	Scholarship	장학금 (기부함)	2,000.00
7.32	Fund for Alma Mater Sent to SNU	모교발전기금 (기부함)	11,000.00
Total 7.30	Education	기부금 - 교육	13,000.00
Total Expense		총지출금	220,290.30
		순수익금	42,526.54

뉴잉글랜드 지부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하버드대에서 특별 강연

하버드 한인학생회 Harvard Korea Society(HKS)가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을 초청해 지난 6월 26일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2017년 평의원회의 참석차 보스턴을 방문한 성 총장은 하버드 피어스 홀 한 강의실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서 “

한국 민주주의와 헌법”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일반인에게도 오픈한 이날 강연에는 10여 명의 한인 학생들이 참석했고, 서울대 동창회에 선 미주동창회 윤상래 회장 (수의 62)과 뉴잉글랜드 정태영 회장 (문리 71) 등이 참석했다.



시카고 동창회 (회장 한경진)의 년례 하계 야유회가 6월 17일 토요일, Elk Grove 소재, Busse Woods Grove #30

에서 회원 및 가족 120 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번 야유회에는 20대, 30대 동문들과 특히 적조했던 동문들이

다수 참석하여 동문간의 우정을 나누었으며 점심식사에 이어서 많은 상품과 여흥 순서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경진
www.snuachicago.org
snuachicago@gmail.com

뉴욕지역 동창회

제39대 회장단 (회장 이대영)
출범 축하모임 개최

7월 13일 뉴욕지역 동창회 제39대 회장단(회장 이대영) 출범 축하 및 상견례 모임이 뉴저지 소재 이대영 회장 자택에서 열렸다. 모두 31명의 회장단과 각 단과대학 동창회 회장들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했다. 이 모임의 안내 공지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초청자가 참석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과 음료로 만찬을 즐기며, 친목을 나누었다. 저녁 만찬 후, 한자리에 모여 동창회 행사 스케줄 등 관련 임원 회의를 했다. 이대영 회장은 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8월 8일에 '정기이사회 및 총회', 12월 2일에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송년회'를 하기

로 결정했다. 전체 회의를 마친 후, 가라오케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모임을 마무리했다.

▲ 제39대 뉴욕지역 동창회 임원
회장 이대영, 이사장 정해민, 부이사장 한태진, 상임고문 이진구, 부회장 손대홍, 감사 김명승, 감사 유무영, 장학위원장 김창수, 특임위원장 김광수, 사무총장 강교숙, IT 위원장겸 총무 김원영

▲ 장학 위원회 임원
위원장: 김창수; 위원: 광승용, 김창수, 성기로, 손경택, 이대영, 이진구, 정인식, 추

재욱, 고문단: 김종율, 오인석, 이준형, 최구진, 최수용

▲ 참석 단과대 동창회장
간호대: 강교숙, 공대: 임도혁, 농대: 김도명, 문리대: 손병우, 미대: 손대홍, 법대: 정해민, 사대: 조달훈, 상대: 이원재, 약대 차가: 금영천, 음대: 조경애



뉴잉글랜드 동창회

정기총회 및 장학금 수여식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2017년 상반기 정기총회를 미주동창회 주관 제26차 평의원회의가 열리는 힐튼 호텔에서 6월 24일 개최하였다. 이는 보스턴에서 열리는 미주 동창회 평의원회의에 지역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고 정태영 회장은 밝혔다. 정기총회에서는 김제성 재무의 결산보고와 박영철 차기회장의 간략한 사업계획 소개에 이어 김선희 차기 감사의 인준이 있었다. 한편, 뉴잉글랜드 동창회 장학금 발표와 장학금 수여식이 6월 23일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 전야제에서 진행되었다. 올 장학생으로는 사라박 양(렉싱턴고교졸), 다니엘서 군 (UMass-Amherst 재학), 서윤정 양(팔프마하 리저널 고교졸) 등 3명이 선발되었다. 6월 말경에 수상식이 진행되어서 3명의 수상자가 모두 인턴쉽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모가 대신 그리고 부모도 참석지 못

한 학생은 담당자가 대신 장학금을 받아서 전달되었다. 3명의 장학금은 윤상래 (수의 62, 미주 동창회장), 김용구 (공대 66, UMass 교수), 익명 한분의 동문들이 각각 \$1000을 후원해 주었다고 이강원 장학위원장은 밝혔다.



좌측부터 정태영 (문리 71) 뉴잉글랜드 동창회장, 이영인 (사대 74, 장학위원), 김용구 (공대 66), 윤상래 (수의 62) 미주동창회 회장, 우측 끝은 이강원 (공대 66) 장학위원장

Good evening Ms. Lee,

I cannot express how grateful I am of this scholarship! Thank you very much, to you and the SNUAA-NE. I do have a single concern, however. From June 21-24, I will be competing in a National engineering and technology competition (TSA Teams) in Orlando, Florida as a representative of my school. Is there another ceremony date I would be able to attend, as I would love to have the opportunity to thank the SNU-AA-NE members in person? Again, thank you for this great opportunity. I've very eager and thankful to hear this exciting news!

Respectfully, Yunjung Seo

뉴잉글랜드 동창회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간담회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지난 6월 19일 보스턴 인근 한 식당에서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문들과 만찬 모임을 가졌다.

반 총장은 이날 모임 벽두 인사말에서 “제가 원래 동창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창회에선 욕 좀 먹지요. 동창회는 오늘 뉴잉글랜드 동창회 참석이 처음입니다.” 라고 서두를 꺼내 보스턴 지역에 체류하면서 초, 중, 고, 대학 동창회를 막론하고 동창회에는 처음 참석한다고 밝혀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반 총장은 2007년 서울대 뉴욕 동창회에 참석한 적은 있으나 그 때는 UN 사무총

장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말하면서 순수한 동문 자격으로 동창회 참석이 처음이라고 애둘러 말했다. 반기문 총장은 문리대 외교학과 63학번이다.

이날 모임은 모든 참석자가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말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참석자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탄없이 시간 제한 없이 개진하였고 반 총장은 관심을 갖고 경청했다. 사적인 이야기에서부터 벤처 회사를 운영하는 동문들로부터 한국에 돌아가면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정책성 건의도 있었다.

김경일 교수(공대 58)는 소리 글자로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반 총장은 화답을 통해 즉석에서 소리의 글자 표현에 상당한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미국의 기후협약 탈퇴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반 총장은 자신의 재임기간 중에 파리 기후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한국 인천 송도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한국인으로 첫 세계적인 일을 총괄하는 자리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새롭게 본 관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세계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만나보니 다수가 자신의 정치적 임지를 먼저 고려하는 인상을 받았다”며 각국 톱 지도자들과의 경험담을 말하면서 공공선 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이해에 더 관심이 많은 지도자들의 일반적 성향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세계정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럽, 아메리카, 아

프리카 등은 모두 유럽 연합 등 지역 협의체나 연합체를 구성 유지하고 있는데 아시아만 없다. 그 이유는 아마 아시아에는 중국, 인도 등 큰 나라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자신의 견해를 말했다.

반 총장은 윤상래 (수의 62) 미주동창회 회장에게 “서울대 미주 동창회장으로서 서울대인의 위상을 높이고 교민 사회의 위상도 높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이번 모임을 준비한 정태영 (문리 71) 전 뉴잉글랜드 동창회장은 한국인으로 첫 세계적인 공적인 일을 세계 차원에서 다뤄본 반 총장의 경험은 앞으로 세계 속으로 외연을 넓혀 나가고 있는 한국인과 한국 정부에 계속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이번 간담회의 의의를 말했다.

이날 간담에는 58학번부터 91학번까지 26명의 각 분야 동문들이 참석했다.

<기사 제공: 정태영 (문리 71) 직전 뉴잉글랜드 동창회장>

워싱턴 DC 동창회

2017 정기 이사회 및 총회

워싱턴 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 제35대 동창회 (회장 안선미)는 2017년 정기 이사회 및 총회를 지난 6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비엔나에 위치한 우래옥에서 가졌다. 1부 이사회와 2부에는 이순신 미주 교육본부 이사장인 이내원 (사대 58) 동문의 특별강연으로 진행됐다.

5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한 총회에서 안 회장은 지난 1년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행된 동창회 사업과 활동보고를 하였다. 이어 한정희 동문의 재무보고와 함은선 동문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올해 후반기에 계획된 첫번 행사로 9월 17일 일요일에 열릴게 될 동창회 자선음악회에 대한 준비상황을 함은선 준비 위원장이 보고하였다. 워싱턴 동창회에서 2년에 한번씩 가져온 자선음악회를 올해 3번째 준비하면서 안선미 회장은 “동문회가 우리끼리만의 친교모임이 아니라 지



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이웃과 나누는 서울대 동창회란 좋은 이미지를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로 하였다. 또한 12월 10일(일)에 열리는 송년잔치에 대한 계획과 논의가 이루어졌고, 더 많은 젊은 동문들과 가족들

거북선 세계 7대 전함 선정의 의미’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스스로를 이순신 숭모인으로 자칭하는 이 동문은 ‘작년 4월 USNI가 일반 독자 2만6,000명의 독자를 상대로 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군함과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거북선이 상위 7개 중 하나로 뽑혔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다른 6개의 군함은 모두 1900년대 이후에 제작된 것이었지만 거북선만 1500년대에 제작돼 가장 오래된 최고(最高) 군함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였다. 이 동문은 ‘USNI는 거북선의 곡선형 갑판과 크기 등을

자세히 언급하며 거의 두 세기를 앞서 만들어진 최고의 형태라고 극찬하였다’며 특별강연을 하였다.

<편집위원 한정민 (농대 87)>

북가주 동창회

여름 야유회 개최



미국 땅에 살면서 기다려지는 것이 동문회가 주최하는 행사인데 호텔에서 열리는 무슨 파티면 무슨 옷을 입고 가나? 여인들은 항상 걱정하지만 여름 야유회는 그런 걱정 없이 편한 옷차림으로 반가운 얼굴들 만나 웃고 담소하며 즐기만 하는 모임이라 모두 화

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몇 년 전 이곳에서 야유회를 하고 한적하고 우리만의 공간이라 너무 좋아 벌써 세 번째 만남이 San Jose 인근 산 속에 위치한 Stevens Creek County Park에서 6월 24일 87명이 모여 초여름의 화창한 날씨에 훈훈한 서울대 동문 간의 우정이

어울려 포근한 하루를 보낸다. 이번 음식 준비는 주 메뉴인 불고기, 잡채, 김치, 콩치는 회비에서 충당하고 등산 모임인 Zinfandel 산악 회원이 다음과 같은 먹을거리를 도네이션 해주었다. 김밥, 떡, 옥수수, 고구마, 딸기, 수박, 체리, 참외, 맥주, 물, 커피, 밥, 찜, 찜зя, 갖김

치, 나물 등. Zinfandel 회원 모두 힘을 보태주셨지만, 그 중에도 전해경, 김철규, 이장우, 박준경 동문 내외분들의 수고가 많았기에 그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야유회는 서울대 교가 제창(역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라 입학한 지 40-60년이 지났는데도 잘들 부르신다), 6.25 전몰장병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 모임에 수고하신 분, Stanford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은 젊은 동문 3명, 부부가 서울대 동문인 커플 소개로 행사는 이어지고 푸짐한 후식으로 수박, 옥수수, 고구마를 먹으며 용기종기 모여 정담을 즐기고 일부는 율성희, 이재성 동문의 하모니카 연주에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구오니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하기로 한 행사가 2시간이 지나 어느덧 4시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았는지 임희례 동문의 달콤한 유혹에 10명이 “시골집”이란 한정식 식당에서 흑염소, 아귀찜을 앞에 놓고 오후 7시까지 그야말로 흐뭇하게 지낸 하루였다.

<글, 사진: 홍경삼>

주중광 UGA 석좌 교수

국제 항바이러스 학회에서

Antonin Holy Memorial Lecture Award 수상



조지아 대학(University of Georgia) 의 주중광 석좌 교수가 지난 5월 20일 부터 25일에 아틀란타에서 개최된 국제 항바이러스 학회 (International Society of Antiviral Research, ISAR)에서 Antonin Holy Memorial Lecture Award 를 수상하였다. 본상은 AIDS 및 B형 간염 치료제를 개발한 Holy교수를 기념하고자 제정 되었으며, 주중광 동문은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기여한 공헌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모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주중광 동문은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세계적 학자로서 315편의 SCI논문, 60건의 미국특허, 130여명의 대학원생 및 박사후 연구원을 양성하였으며,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로 전세계 환자들과 인류의 건강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다. 또한 산학협력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Pharmasset과 ATEA Pharmaceuticals라는 신약개발 전문회사를 창업하여 대학에서 개발된 물질들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였고, 그 결과 Pharmasset은 세계 5위 제약 기업인 Gilead Science에 합병하는 산학의 협조에 기여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주 동문은 이와 같은 공적을 인정받아 현재 조지아대학교에서 종신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8에는 미국화학회상수상, 주 교수는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와 Who's Who in American 에 게재 되었으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전체 연구자의 5% 미만의 연구자만 받는 NIH Merit Award 수상, 2002년 조지아대학 Inventor of the Year, 2014 화학요법제 신약개발의 대가인 Montgomery 박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Montgomery Award 를 수상하였으며, 2015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 및 Elected Fellow of National Academy of Inventor and Fellow of American Association of Advancement of Science 수상, 2017년엔 SUNY Buffalo Willis Gregory Award를 수상했다. 70세가 넘는 연세에도 현재까지 현역에서 활발한 항바이러스 연구활동을 하며 많은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소프라노 강미자 초청 독창회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



강미자 (음대 62) 동문이 지난 6월 6일 서울의 예술의 전당 IBK Chamber Hall (600석)에서 매우 성공적인 독창회 "The Last Concert" 를 가졌다. 다음은 음악 칼럼리스트 백석호 님이 묘사한 이날 공연 기



사에서 인용한 부분이다. "소프라노 강미자가 다시 우리 앞에 섰다. 2010년 12월 12일이후 7년 만에 한국 팬들 앞에 선 무대였다. 이번 무대는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이었다. 강미자는

허병렬 뉴욕 한국학교 이사장

‘한국 문화 교육 50년’ 강의와 전시회



허병렬 (사범대 42회) 선생 (현, 뉴욕 한국학교 이사장)은 미국에서 그녀가 행한 ‘한국문화교육 50년’을 기념하기 위해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주최한 교사 연수회에서 이와 관련된 강의와 전시회를 열고 있다. 제1회 NJ, 제2회 NYC에서의 11일 간의 행사는 이미 끝났고, 오는 8월 10일부터 12일 간 Atlanta(GA)에서 열리는 전국 한국 학교 교사연수회에서도 같은 행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강연의 주제는 학생들에게 한국 생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주어서 이를 사랑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에 공헌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학습 목적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20점의 전시 작품



은 그녀가 제작한 학습 자료인 행사 계획서, 시청각 자료, 저서 등 다양하여서 관람자들을 자각하고 그들의 연구 의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20장의 전시품 중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들이 섞여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문화의 숲’, ‘심청, 미국 시민권을 받다’, ‘미니 교육대학 시도’, ‘한국 문화가 노래한다’, ‘학교 문집 65권을 내다’, ‘NAKS의 마중물’, ‘필요하면 만든 책들’, ‘한인 교육 연구 편집 20호’, ‘샘물의 새 물줄기’ 등.

한편, 오는 8월 NAKS의 아틀란타 행사에 맞춰서 ‘한국문화교육 50년’을 기념하는 책자 발행도 준비 중에 있다.

나왔는데 이때 강미자는 가장 자주 출연한 성악가의 한 사람이었다. 당시 지성인들에게 크게 어필한 클래식 스타였던 셈이다.

37세의 나이에 떠난 미국 유학은, 성악가에게 ‘예술성’을 불어넣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더욱이 스승인 오렌 브라운 교수는 음성학과 발성법의 위대한 교육자로 수많은 명성악가들을 길러냈다. 강미자가 새로운 세계에서 음악을 접하며 10여년 간의 공부를 마치고 마침내 귀국했을 때, 팬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날 ‘미사모’라는 이름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씨앗이었다.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600여 객석엔 빈틈이 별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 찼으며, 각계 저명인사들도 많이 보였다. 강미자 애창가곡집 음반은 LP시대 베스트 셀러였는데, 이날 그 앨범을 손에 들고 온 관객도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로비에서 옛 LP에 싸인을 받는 팬의 모습을 보았다. 독창회를 마친 74세의 성악가에게 보낸 오마주(hommage)였다.” 강미자 동문의 부군은 이채진(문리 55) 동문이며 Claremont McKenna College 의 석좌 교수 및 명예 교수이고, 본 동창회보의 논설위원이다.

<이민섭 전 장관 LA 탐방>

LA 한국 문화원 방문

현역 국회의원 시절(1981-1996) 유독 미주지역에 관심이 많아 자주 들리고 했었는데, 여러가지 인연에서였다. 강원도 출신(춘천)으로 미주지역 강원도민 행사로 자주 들리기도 했고, 학교 동문들도 많아 여러가지 인연도 맺을 수 있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시절 초대 문화체육부 장관을 맡으면서 저의 역작(?)으로 해외 문화원을 건립(1차 LA, 워싱턴, 도쿄, 파리 4곳, 현재는 세계 31개국) 하여 한국 문화의 세계화, 한류 문화 확산의 Power Base로 자리잡게 된 것도 큰 보람으로 남는다.

지난 6월 12일 10여년 만에 LA에 들려 재임시 신설했던 LA. 한국문화원에 들려보니 정말 감회가 깊었다. 들어서자마자 한국 문화의 숨결이 면면히 느껴

져 다양한 고전 문화 전시장, 각종 공연, 미술화랑 다용도로 쓰여지는 다목적 강당, 넓은 주차장이 갖추어져 세계 3대 강국인 문화 한국 위상에 손색이 없었다. 오랜 공보, 문화 관료 경륜을 쌓은 노련하고 겸손한 김낙중 문화원장(서울법대)을 만나보니 각종 행사와 새로 오픈하는 2018 평창올림픽 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매우 분주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첨단 IT시설을 도입한 3D 등 영상 문화 전시 시스템을 도입해 선진국 문화원 답게 위용을 갖추고 있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전시와 공연을 관람, 가깝고 친절한 문화 사랑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김낙중 LA 한국 문화원장 요약의 글
“이민섭 전 문화체육부 초대(1대) 장관은 6.12 (월)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



이민섭 전 장관, 김낙중 LA 한국문화원장

을 방문, 해외에서의 한국 문화 홍보 방안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문화알리기의 중요성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 전 장관은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도 88 서울올림픽과 같이 우리 동포사회의 높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대한민국의 국력이 한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전 초대 문화체육부 장관, 국회 문공위원장, 11, 12, 13, 14대 국회의원



백옥자 동문, 이서희 동문, 이민섭 전 장관, 성주경 남가주 동창회장, 김병연 동문

인공 망막 국내 첫 이식 ... 실명 50대 “사람 알아봐”

윤영희 (의대 84) 서울 아산병원 교수

국내 첫 인공망막 이식수술을 받은 이화정 씨(왼쪽)와 수술을 집도한 윤영희 (의대 84) 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씨는 10년 만에 시력을 찾았다. “수술 전에는 손으로 일일이 물건을 만져서 구분했어요. 물건의 위치가 바뀌면 못 찾았습니다. 지금은 물건의 형태를 어렴풋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휴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망막색소변성으로 10년 전 시력 상실 수신가침 이식해 시각 정보 인식 개그맨 이동우 등 국내 환자 1만명 수술비 2억 ... 미국 등선 230건 시행

유전병(망막색소변성)으로 실명했다 극적으로 시력을 일부 회복한 이화정(54여·서울 동대문구)씨는 29일 통화에서 목소리가 들

며 있었다. 이씨는 “만지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생활이 바뀌었다”며 “바깥에서 혼자 독립적으로 거동하기가 아직 힘들지만 집 안에서 혼자서 하는 일상생활의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윤영희 (의대 84) 서울아산병원 안과 교수의 집도로 지난달 26일 인공망막 이식수술을 받았고, 한 달여 만에 시력을 다소나마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이 수술은 미국유립중동 등지에서 230여 건이 시행됐고,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수술 직전엔 눈 앞의 강한 빛을 희미하게 감지하는 정도였다. 혼자 생활하는 게 불가능해 하루 24시간 남편이 옆에서 도와야 했다. 이랬던 이씨가 앞을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지금은 도로에 자동차가 지나가는지, 앞에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됐다. 29일 시력 검사에서 0.03으로 측정됐



다. “시력판의 큰 글씨를 다시 읽게 됐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딸이 결혼할 때 제가 부족받지 않고 단상 위를 걸어가 회초를 밝히고 싶어요.” 이씨는 29일 서울아산병원 외래 진료를 받으러 와서 “교수님! 머리 묶으셨어요!”라고 물어 머리를 묶고 진료하던 윤 교수를 놀라게 했다. 이씨에게 시력에 이상이 생긴 건

20년 전이다. 어두운 곳에서 길이 잘 안 보였으며, 점차 주변이 흐릿하게 보이고 시야가 좁아져 2007년 시력을 잃었다. 4000명당 1명꼴로 생기며 국내에선 이 질환 환자가 약 1만 명이다. 개그맨으로 활동하다 시력을 잃은 이동우씨가 대표적이다.

<출처: 모국 중앙일보>

정정합니다

지난 6월호 12페이지에 “데이브 민 연방의원 의원 도전” 기사에서 민병곤 (공대 65), 전혜경 (문리 67) 동문님의 사진이 잘못 게재되었습니다. 다음의 사진으로 바로잡습니다. 당사자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a.org 로 보내주시시오.

<편집 위원회>



화보로 보는 제26차 평의원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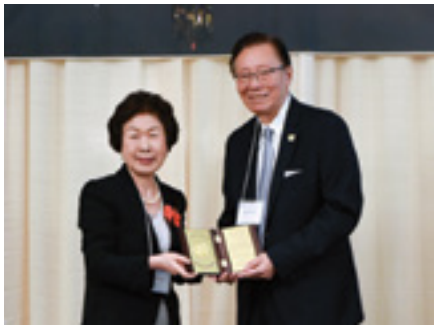
Jun. 23~24, 2017 / Hilton Boston, Woburn



참여성: 김문소 (수의 61)

보스턴 한미문화재단 이사장

김문소 동문은 재미한인의 정치참여 고취 및 미주사회에 한국문화를 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시어 모교와 동창회 명예를 드높여 참여상을 수상했다.



봉사상: 정해민 (법대 55)

현 Elmhurst Community Center 이사장

정해민 동문은 뉴욕한인봉사센터 회관 구입 및 지역사회 봉사와 한인 권익신장을 위해 헌신하여 모교와 동창회 명예를 드높여 봉사상을 수상했다.



서정화 총동창회 회장 공로패 수상자:

좌측부터, 이건일(의대 62, 의대 총동창회 회장, 조동준 동문 대리 수상), 정승규(공대 60, 시카고지부 회장), 안선미(농대 65, DC 지부 회장), 변주선 모국 총동창회 부회장, 김도명(농대 70, 뉴욕지부 회장), 김병연(공대 68, 남가주지부 회장), 정태영(문리 71, 뉴잉글랜드지부 회장), 최정웅(공대 64, 필라지부 회장), 임희례(간호 73, 북가주지부 회장, 최경선 동문대리 수상)



봉사상: 정정욱 (의대 66)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이사장

정정욱 동문은 로드아일랜드주 한인회 창립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어 모교와 동창회 명예를 드높여 봉사상을 수상했다.



학술상: 이강원 (공대 66)

뉴잉글랜드 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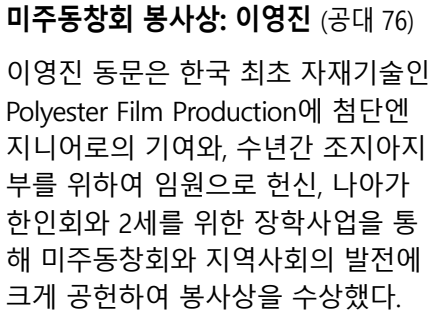
이강원 동문은 항구, 공항, 운하와 같은 교통 인프라 시스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여 학술상을 수상했다.



학술상: 윤도영 (공대 65)

북가주 지부

윤도영 동문은 화학공학 분야의 탁월한 연구 업적을 미국과 한국 등에서 인정받아 모교와 동창회 명예를 드높여 학술상을 수상했다.



미주동창회 봉사상: 정국휘 (미대 88)

북가주 지부

정국휘 동문은 서울대 북가주 동창회 총무로 6년간 봉사하면서 성실하게 행정력을 발휘하여 북가주 동창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봉사상을 수상했다.





김현영 (수이 58)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를 다녀와서

지난 6월 23~24일, 2박3일 간 보스턴에서 열렸던 서울대 미주동창회 제26회 평의원 회의에 처음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평의원 회의에 참석은 미주 동창회장으로 새로 취임하는 윤상래 회장을 moral support 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미국에서 오랜기간 가깝게 지낸 수의대 후배이다. 이번 회장 취임을 축하하린다.

현재 서울대 미주 동창 회원이 약 1만여 명이 되고 알래스카 지역 동창회 등 미국내 25지역 (chapter)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는데 각지역에 배정된 대표를 평의원 (delegate)으로 청하여 매년 지역을 옮기며 평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다. 이번 평의원 회의는 보스턴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고 한다. 평의원 88명 등 그 가족과 일반 동창생들을 합하여 200여 명이 모였다. 모인 평의원 동문들을 보면 한국에서도 선택되어 뽕쳐 미국에서 다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세계적인 안목을 갖춘 전문인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한국의 엘리트들이 모인 특수 community 공동체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 총장을 비롯, 서울대 총동창회 부회장 등 여러분이 참석하였다.

회의 중 차기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흥미있는 현상은 세후보가 모두 70번 학번으로서 1970년 입학생들이니 갓 65살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 세대이다. 김형석 교수의 “100세를 살고 보라” 책에서 인생의 가장 황금기로서 창의적 활동기는 60-75세라는 말이 공감되고 있다.

세 후보가 전체 회의 앞으로 나와 소견 발표를 하고 투표 과정도 엄격히 하는 것을 보았다. 일차 선거에서는 과반수가 없어 2차선거에서 2명을 두고 투표하였는데 2표 차이로 차기 회장이 뽕쳤다. 보수도 없는 아니 자신들의 호주머니에서 많은 돈을 희사하여야 하고, 회장단의 하는 일을 보니까 full-time job으로 2년간 25개 지역을 방문하고 6,800부가 매달 발송되는 신문을 발행하고, 모교 발전기금 조성, 장학금 기금 조성, 관리 등 년 예산 24만불을 집행하는 회장을 비롯 임원들의 봉사적 정신을 존중하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을 보면서 2년 전 교황 Francis의 UN에서 연설한 내용이 떠오른다. “Full meaning of life is found in selfless service to others and in the sage and respectful use of creation for the common good.” (참된 인생이란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섬기며 공공 이익을 위해 창조물을 지혜롭고 경의롭게 사용함에 있다).

어떤 평의원이 단상에 올라가 이야기하면서 서울대가 자기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서 몇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번 평의원 모임에서 수의대 출신이 윤상래 회장을 비롯, 김문소, 주기목 동문 등 8명이 참석한 것은 졸업생이 아주 작은 단과 대학으로서는 많이 참석하였다고 보겠다. 필자가 다니던 시절 수의과 대학은 단과대학 중 가장 작은 대학으로 입학생이 80명인데 졸업시에는 50여명이 졸업하였다. 당시 1년 6개월 학보병으로 군에 입대하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함께 참석한 58학번인 박중수 (California), 조정현 (NY), 필자(Pennsylvania) 등 세 사람은 60년대 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각자 전문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고 특히 박중수 동문은 미주 서울대 평의원 출신 회원으로서 서울대 모교에 거금의 발전 기금을 기부하였다. 지난 50년 간 미국에서도 그렇게 거리가 멀어도 우리 세 동문은 매년 한 번씩 만나는 친형제 이상으로 각별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수의대 재학 중 캐나다 선교사 이시며 세계적 수의병리학자 스코필드 박사를 스승으로 만나 나의 role model로 모신 것이다. 그는 캐나다 온타리오 수의대를 70세에 은퇴하고 두 번 째 한국으로 (첫번 째는 31 운동 시절 세브란스의대 위생학 교수 선교사로서 일본인의 만행을 사진으로 찍어 세계적으로 알리어 31 운동 제34인으로 칭호를 받음) 돌아와 수의대에서 12년 간 교수하시다가 돌아가시어 동창동 국립묘지에 묻혀졌다. 필자는 그로부터 수의병리학도 배웠지만 기독교 박애 정신을 배워 그로부터 배운 정신을 현재 과테말라에서 뿌리고 있다.

필자는 종로 5가를 중심으로 서울대 사대부 중 (용두동), 부고 (을지로 5가), 수의대 (연건동), 보건대학원 (연건동) 등 서울대 이름 그늘에서 12년을 교육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중학 때부터 대학원까지 12년간 같은 모형의 서울대 뱃지 (badge)를 달고 다닌 것이다. 마침 한국에서 참석할 총동창회 변주선 부회장께서 사대부고 출신이어서 자연스럽게 부고 동창 7명이 함께 성낙인 총장을 모시고 기념사진까지 촬영하였다.

서울대 그늘에서 12년 교육이 오늘의 나를 만들게 한 기반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에 이번 평의원 자격으로 초청하여 주신 손재욱 전회장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와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과테말라 산칼로스 국립대 초빙 교수



정해민 (법대 55)

“노후 준비를 위한 7가지 원칙”

지난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Inauguration)이 있었다. 공화당 출신의 조지 W. Bush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공화당이 다시 탈환한 대통령이라서 특별히 공화당측 사람들은 너도나도 취임식에 참석하려 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조지 부시 대통령 (제41대 대통령- George H. W. Bush: 제43대 대통령 George W. Bush의 아버지)이 이 취임식에 꼭 참석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불행하게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취임식 몇 일 전에 신병으로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참석을 고집하니까 담당 의사가 “당신이 만일 거기에 가면 당신은 아마 6피트 아래 땅속 (under 6 feet)에 떨어지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가겠느냐?” 라고 강력히 참석불가를 선언했다고 한다. 하기가 91세 고령에 더구나 폐렴 기가 있는 데다 또 취임식은 추운 날씨임에도 실외에서 거행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몇 시간을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을 주치의로서 애기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Under 6 feet’ 쉬운 한국말로로는 “물히고 싶으세요?”란 말 일성 싶다.

필자가 양인회 동문께서 주로 지도하고 있는 뉴저지 컴퓨터 교실에 참여하는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컴퓨터를 만지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배우고 있는 Photoshop, Adobe 1.5 Audition, Movie Maker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아주 흥미롭고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전율이 있다. 거기서 하고 있는 ‘뉴욕에서 만나요’ 카페의 내 자료실에도 최근 한 번 올린 적이 있어 카페를 열어 본 분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은 골든 클럽 회원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한다. 이것은 나에게 들어 온 메일 중에서 퍼 온 글이지만 우리 골든 클럽 회원들에게는 많이 공감되는 듯하여서다.

“노후 준비를 위한 7가지 원칙”

제1원칙 평생 현역

불가능한 10억 만들기엔 절망할 것이 아니라 평생 일을 하라는 것으로 신세대 노인으로서 평생 현역으로 일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 젊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 일했다면 은퇴 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 행복 해지는 일을 하면서 평생 현역으로 살라는 것.

정년 퇴직에 임박해서 노후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미리 자신이 퇴직 후에 무슨 일

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그에 관한 전문 지식과 식견을 준비해야 한다.

제2원칙 평생 경제

노후에도 작은 일이라도 해서 경제적 활동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조언 젊었을 때 벌여놓은 돈을 쓰면서 산다는 것은 환상. 젊을 때 노후에 필요한 돈을 다 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저금리 현상이나 인플레이션 등 각종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 이자수입으로 살기도 힘들다.

제3원칙 평생 건강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킨다. 늙어서 중병을 앓으면 서럽고 애써 모은 노후자금을 병원비로 지급하기는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제4원칙 평생 젊음

매사에 젊은이들처럼 도전정신을 유지한다.

제5원칙 평생 관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친한 사람이 최소 여섯 명이고 일상사의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노후가 행복하다. 노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인맥을 만들어 두라는 조언

제6원칙 평생 공부

현시대 지식의 양은 급격히 증가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평생을 살 수 없다는 것. 자신이 맡은 업무는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끊임없이 학습하라는 주문. 세상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를 지녀라.

제7원칙 평생 마음 개발

일상에서 불가피하게 부딪치는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마음공부가 필요하다. 헛된 욕망에 괴로워하지 말고 늘 겸손함을 유지하며 이웃에게 베푸는 자세를 지니면 삶에 보람을 느껴 스스로 행복해진다.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마음 역시 건강하게 갖고 닦아야 한다.

[맺는 말]

골든 클럽 회원 중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빨리 ‘Under 6 feet’ 되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이다. 건강 (육체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의 것들을 다 실천할 수는 없지만 골든 클럽의 등산, 소풍, 골프, 컴퓨터 교실, 송년회, 신년 교례회 등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많다. 그래서 나는 골든 클럽 모임을 아주 좋아한다. 아무쪼록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이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서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두서 없는 글을 마친다.



나수호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문학 번역의 이론과 실제

한국 문학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은 오랜 관심사이지만 최근 한강의 <채식주의자>의 영역판이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한 이후로 그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그런데 번역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얼핏 보면 간단한 작업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된다.

흔히 번역서를 보면 ‘누구누구 옮김’이라는 말로 번역가의 이름을 표시하는데, 이를 미루어 볼 때 번역이 무엇을 옮기는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를 봐도 마찬가지이다. ‘Translate’라는 단어는 라틴어 ‘translatum’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는 ‘무엇을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뜻이다. 즉, 옮긴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옮겨지는 대상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것이다. 우선 그 대상을 텍스트의 ‘의미’라고 규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의미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일까? 원문의 언어 그 자체에 있는가? 아니면 원문에 대한 각 독자의 해석에 있는가?

전자의 경우는 의미가 원어의 단어나 문법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워프(Benjamin Whorf)가 주장한 언어 상대성 가설에 의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강형(強形) 언어 상대성 가설은 언어가 사고방식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데 오늘날에는 이것을 인정하는 학자는 많지 않다. 오히려 약형(弱形) 가설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언어가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약형 언어 상대성 가설만을 받아들이다 해도 어떤 텍스트의 의미 중에 일부가 언어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후자의 경우는 의미가 언어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사실이 아니라 그 언어를 읽고 해석하는 독자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인간의 의사소통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세대년 위버 모델(Shannon-Weaver model)을 보면 발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메시지로 암호화하여 매체를 통해 보내면 수신자가 그 메시지를 받아서 해독하여 발신자의 의미를 해석한다. 구어로든 문어로든 그 과정이 같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체계는 의미를 암호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두 견해 중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 사실 이 둘은 상호배타적인 명

제가 아니라서 모두 맞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쪽에 극단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긴다. 의미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면 번역이 불가능해진다. 언어 자체가 전달이 안 되니까 의미 전달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번역가의 해석에 너무 의지하면 작업이 번역보다 변안에 더 가까워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원문에 대한 충실함 없이 원문과 거리가 먼 텍스트를 창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타협하는 길 즉, 원문을 존중하면서 독자와 소통하는 과정까지 고려하는 것이 최상책일 것이다.

번역을 실제로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이론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론적 접근법을 한 번 선택하면 그만인 것은 아니다. 문장 하나 하나를 번역할 때마다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한영 번역은 양쪽 언어와 문화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이다. 언어가 생각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번역할 때에 메시지를 언어로 암호화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적인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원작품을 읽는 독자들이 공유하는 사회·문화·역사적 배경이 번역 작품을 읽는 독자들이 공유하는 배경과 다르기 때문에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더라도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어와 영어는 언어적인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많이 언급되는 예로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들 수 있다. ‘노랄다’, ‘노르스름하다’, ‘누랄다’, ‘누르스름하다’, ‘노릇노릇’ 등은 모두 노란 색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서 번역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영어에도 여러 사물을 빌려서 ‘golden’, ‘amber’, ‘lemon’, ‘sandy’ 등 ‘yellow’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한국어권 독자가 ‘노릇노릇하다’에서 받은 느낌과 영어권 독자가 ‘golden’에서 받은 느낌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근접하다고 본다. 언어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도 많다. 예를 들면 ‘한(恨)’이나 ‘눈치’와 같은 개념은 한국 사회문화·역사에 깊이 뿌리를 둔 것이다. 그런데 영어로 ‘한’의 모든 뉘앙스를 포착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번역이 불가능할까? 문맥 없이 한 단어로 번역해야 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번역은 단어 하나를 단어 하나로 교체하는 작업이 아니다. 그리고 독자의 언어에 어떤 단어가 없다고 해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박



이홍빈 (의대 57)

Sincere way
For me
But gingerly yet to scoff

Bedim
For me
Also only gloaming

“ Hello, being ‘gingery’ ”

- ‘Spirituelle’

Be good
For me
But also repenting

Be bereft
For me
Only to know the way not used to

Be sincere
For me
Gingerly yet not to scoff .

등급은 어머니

김수영 (사대 57)

낙타등처럼 휘인 엄마의 등에

공주가 되었다

엄마의 등에 앉으면

신호등이 켜졌다

나의 무게로

힘이 빠져 갔지만

내가 얹히는 날엔 엄마는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았다

나는 두 발로 초소리처럼 등을 차며

더 높이 날으라고 여러광을 부렸다

어머니는 말없이 세상을 떠나셨다

신기하게도 굵은 허리가 쭉 퍼졌다

그제야 두다리 뽕고 편히 주무신다.

은 ‘한’이나 ‘눈치’ 같은 개념도 번역이 가능하다.

물론 위와 같은 예는 지극히 간단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풀기 쉬운 측에 속한다. 이것보다 고민해야 할 문제는 번역을 통해 전달하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옮겨지는 것이 ‘경험’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즉, 독자가 원작품을 읽을 때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원작품을 읽을 수 없는 독자에게는 그와 같은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이 언어에 어떤 단어가 없다고 해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박

해가 요구되며 두 문화 간의 틈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놓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단어의 의미를 옮기는 단순한 수준보다 훨씬 고차원적 작업이다. 번역가가 두 문화, 두 언어, 두 세계의 경계에 자리를 잡고 그 사이를 왕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무리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을 소개해주고 싶더라도 그것을 세계의 독자들이 소화하고 감상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성공한다면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는 데에 큰 몫을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의 정세를 보면 이보다 더 절실한 일이 없는 것 같다.



김지영 (사대 69)

1. 초원 복집

“우리가 남이가” -- 이 말에 “?” 붙이는 사람은 부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물음표를 붙인다. 나의 가장 긴 - 3박4일 - 부산 방문은 ‘초원 북국’에서 시작한다.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기춘 등 부산 출신 유력 인사들이 김영삼 후보를 도와야 하는 “철학적, 역사적 당위성”으로 “우리가 남이가”를 외쳤다면 그 복집이다. 제4회 부산 국제문학제 참석차 부산에 온 길이다. 첫 점심은 문학제 준비위원장인 부경대학교 영문과 박양근 교수님과 같이한다. 부경대 대연 캠퍼스 후문 쪽에 있는 식당, ‘초원 북국집’. “여기가 그집이네.” 국제 행사에 참석한 만큼 ‘우리’가 꼭 부산 사람일 이유는 없다. 나도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속의 ‘우리’에 슬그머니 나 자신을 끼워 넣어 본다. 우야트, 초원 북국의 북어 매운탕은 맛있

2. 광안리 갈매기

갈매기를 찾는다. 광안리 해변. 언제였던가? 그 때 여기서 같이 놀던 그놈들. 한 마리도 안 보인다. 오후 세시 쯤, 이 시간에 갈매기들은 낮잠을 자나? 밤 세시에 다시 나와 본다. 당연히 한 마리도 없다. 부산 갈매기들은 모두 야행성 환자일까? 일본식 정종 대포 한잔, 또 한잔을 하면서 광안대교를 본다. 흥, 청, 백, 황의 네온 빛이 은은하다. 그중에 진홍색 다리가 젤 맘에 든다. 야속한 갈매기를 생각하며, 이런 헛소리를 해본다.

갈매기를 찾습니다. 그놈 눈동자 속에 내 얼굴을 봐야겠거든요. 그 때 멀리 들어간 내 눈동자

“우리가 남이가” 그곳서 찾은 인연은...

오달 또 떠나다 - 이번엔 부산

그 속에 내 영혼이 있었대요. 내일 아침 또 나와봐야겠네요. 지금은 새벽 세시 광안리 바닷가. 근데 그 영혼이라는 게 꼭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나네요. 정종 대포 두 잔 탓인가?



광안리에는 갈매기가 없다.

3. 인문학자??

‘제4차 부산 국제문학제 김지영 인문학자 초청 강연’ -- 이런 거창한 현수막이 걸려있네. “이거 내 얘기 맞아?” 잠시 당황한다. ‘향수와 역마살: NOSTALGIA AND WUNDERLUST’ -- 나도 이렇게 거창한 제목으로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 한 시간 반동안 열심히 들어주신 부산 문인들께 감사한다.



박양근(오른쪽) 교수님과 함께 선 필자.

4. Five or Six Islands

오륙도 -- 영어로 뭐라고 해야지? 참석자 일행이 부산 관광을 나섰다. 오륙도는 당연히 한나절 관광의 필수 코스. UCLA 영문과 Ursula Heise 교수와 그녀의 동행인 John을 위해서 즉석에서 관광

가이드가 되어야 했다. 오륙도를 Five or Six Islands라고 설명을 할 수 밖에. 내 눈에는 두 개 아니면 세 개 밖에 안 보이는데, 부산 토박이 시인의 설명: 오륙도는 밀물 때 보면 여섯 개 바위섬, 썰물 때 보면 섬이 다섯 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다.



오륙도

오륙도가 보이는 이기대 공원 해안에서 이 나무를 만났다. 캘리포니아 산에 지천으로 있는 yucca, 한국에서는 여기서 처음 본다.



유카

5. 범어사

범어사 대웅전, 절 규모에 비해서 자그마하다. 대신 관음전, 지장전이 대웅전 좌우에 같은 크기로 배열되어 있다. 대웅전에 모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범어사에는 특별히 겸손하신가 보다. 금정산 자락, 부산에 이렇게 높은 산이 있는 것은 와봐야 알 일이다.

해동 용궁사, 파도가 범당 마당 앞까지 밀려오는 기가 막힌 장소이다. 해수관음께서 자리잡기에 모자람이 없는 명

당이다. 사람이 문제다. 기도보다는 관광이 앞서는 절이 되어 버렸다. 금칠을 한 커다란 불상들의 내 눈에는 별것게 보인다. 부산 방문 마지막(?) 날. 점심은 가장 바닷가 낙지집. 낙지 매운탕을 시킨다. 매운탕 냄비 국물이 펄펄 끓는다. 종업원 아줌마가 옆에 갖다 놓은 그릇 뚜껑을 연다. 그리고 날 보고 살아있는 낙지를 국물에 넣으란다. 자기는 못 하겠다고. 집게로 집어 올리니 그 많은 발로 그릇에 딱 붙어서 안 나온다. 간신히 잡아서 냄비로 이동... 아 참 잔인하다.

6. 전전화문(弔電話文)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을 거쳐 공주로. 그런데 일이 생겼다. 점심 때 저지른 살생의 업보 탓인지, 내 미국 전화기를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이다. 2년 동안 정들은 갤럭시 노트 4,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진, 기록 등등. 아쉽게 찍이 없네. 고등학교 국어책에 나오던 조침문(弔針文)이 생각한다. “유세차 모넨 모월 모일, 망부 모씨네 전화자에게 고하노니...” 그런데 기적처럼 내 전화기의 소재를 파악했다. 부산 금사동 어디에 있는 일광 택시회사에 무사히 계시단다. 문제는 이 몸은 공주에 있고 다음날 새벽 공항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다. 내 전화기를 다시 만나는 길은 내가 찾아가는 수밖에. 그래서 차를 몰고 부산으로 다시 간다. 왕복 10시간, 그렇게 하여 나와 전화기의 인연은 다시 이어진다. 근데 좀 으시시. 내 동선은 어딘가 자료로 남아있다는 사실.

7. 옷깃을 여미고

“옷깃을 스쳐도 대단한 인연이다.” 흔히 듣는 이 말 때문에 옷깃을 스치는 일이 아주 하찮은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알고 있었다. 옷깃이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면서. 옷깃은 한복을 입을 때 목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부분의 옷자락 끝 선을 말한다.고. 문학제에 참석하신 김홍신 작가의 강연에서 배운 이야기이다. 남녀간에 옷깃을 스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인연이구나. 떠나 버린 광안리 갈매기, 다시 만난 로스 안젤레스 전화기. 인연들의 끈을 잡고 옷깃을 여민다. 인연 이야기 하나 더. 부산에서 ‘옷깃’이 뭔지 가르쳐준 김홍신 작가는 나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인연이 있다. 소매 끝을 스친 인연.



김창수 (약대 64)

<경제 에세이>

노후를 위한 투자 원칙

노후를 위해 자금을 축적하려면 무작정 노력하는 것보다 원칙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다.

재정 설계와 투자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몇 가지 원칙대로 실행하면, 노후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투자는 재정 설계를 하고 나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노후를 위한 투자도 계획 - 실행 - 사후평가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좋은 투자는 훌륭한 계획에서 나오고, 성공한 투자는 실행에만 관심이 많고 사후 관리가 잘못되는 수가 많다.

노후를 위한 투자는 은퇴 시점까지 계속해야 하는 초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투자하는 도중에 생활이 어려워져서 투자를 못하게 되거나, 주가가 크게 변동할 때 투자를 중단하면, 노후를 위한 투자는 실패로 끝나서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둘째, 투자 자산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원래 투자는 유가증권(주식채권), 부동산 및 현금 자산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주식과 채권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투자 자산은 네 가지 종류로 구성되고 할 수 있다.

노후 자금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 주택 장만, 부채 상환과 같은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의 네 가지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투자의 성패는 시기와 목적에 따라 자산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노후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많은 젊은 층이 주식보다 채권 위주로 투자한다면가 60 대의 투자자가 부동산에 큰 비중을 두는 자산 구성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부동산의 투자 비중을 낮게 하고, 주식 투자 비중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목돈보다

는 연금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금 투자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권장된다.

셋째, 투자는 장기전을 펴야 한다.

주식을 예로 들면, 역사적으로 주식은 25 년 후에는 반드시 크게 이익을 보았고, 10 년만 지나도 별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 경기 부침 중에 단기간에 사고 팔고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늘 손해를 보아왔다. 그래서 투자는 장기전이 유리하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투자 후 처음부터 은퇴 시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하고, 경제와 금융 환경의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있다.

넷째, 가능하면 일찍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노후 준비는 최소한 20 년 내지 30 년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투자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자산이 기하 급수적으로 불어나서 소위 복리효과(Compounding Effect)를 볼 수있다. 예를 들어서, 투자 후 원금이 2 배로 늘어나려면, 연 수익률(%)에 보유 기간(연수)을 곱한 숫자가 72가 되어야 한다. 즉 연리 8 %이면 9 년, 6 %이면 12 년, 4 %이면 18 년이 지나야 투자액이 2 배가 된다.

요즘은 같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는 20 대나 30 대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복리효과로 노후 자금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다섯째, 위험도(Risk)가 높더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노후를 위한 투자는 장기간 실행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채권성 투자보다는 위험도가 높더라도 주식에도 투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심하게 변동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의 채권, 부동산, 현금 자산보다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다.

직장에서 직원들이 주로 가입하고 있는 401(k) 은퇴 플랜은 평균 66 %가 주식에 편중되어있다. 고령화 시대에는 부동산 자산이 금융 자산으로 이동하고, 금융 자산도 주식이나 장기 채권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목돈으로 투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노후에는 판단력도 흐려지고 주위에서 권고하는 말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성인 자녀나 친척 중에 목돈이 필요해서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월 지급액이 생활비의 80% 이상이 되도록 투자액을 연금화시키는 것이 좋다. 목돈으로 신경을 써서 투자하는 것은 은퇴 전의 일이고, 은퇴 후에는 투자나 자산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고정 투자 수익이나 연금 지급액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PA, 경영대학원 68, 논설위원)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



이종호 (인문 81)

참외를 사 왔다. 20년쯤 전 이맘때가 생각났다. 지금은 돌아가신 모친을 모시고 경북 지역으로 여행을 갔었다. 김천, 상주, 그리고 요즘 사드 배치 문제로 한참 시끄러운 성주 일대였다. 곳곳에 참외밭이 있었고 밭이랑 곁에선 할머니들이 조그만 소쿠리에 참외를 대 여섯 개씩 담아 팔고 있었다. 시장에 내 놓기엔 너무 못생겼고 크기도 자라다 만듯 울망줄망한 참외들이었다. “맛있겠네. 우리도 저것 좀 사자.” 유난히 참외를 좋아하셨던 모친이셨다. 차를 세우고 두 소쿠리를 샀다. 한 봉지 가득이었네. 내가 말했다. “많이 샀는데 두어 개 더 주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내 손을 탁 치며 말씀하셨다. “야야, 이거 팔아 얼마나 남는다고. 우리가 하나 덜 두~면 되지.” 그러면서 받

아 든 봉지에서 오히려 두 개를 도로 꺼내 돌려주셨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다. 나는 내밀었던 손을 슬그머니 거둬들였다. 고백컨대, 그때부터 나는 물건 깎는 것은 잘 안한다. 받을 만하니 그만큼 받겠지 여겨서이다. 각쟁이같이 깎아 큰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싫어서이다.

모친은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셨지만 나중에 혼자 글을 익혀 곧잘 책을 읽으셨다. 그리고 가끔은 당신이 읽은 것을 이야기 해 주기도 했는데 대개는 아무개 아무개가 무슨 무슨 착한 일을 했더니 다음 생에 훨씬 더 좋은 인연으로 태어났더라는 식의 옛날 이야기였다. 그런 어머니에게 당시 참외밭

사건(?)은 책에서 배운 것에 대한 당신 나름의 실천 철학이었던 것이다.

최근 잡보장경(雜寶藏經)이라는 설화집을 읽었다. 내용이 옛날 모친이 자주 하시던 이야기와 비슷해 반가웠다. 원래 이 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고대 불교 경전이다. 하지만 생활의 지침이 될 만한 구절들이 많아 요즘은 불교 신자가 아닌 이들도 많이들 찾아 읽는다. 책에 실린 121 개 이야기 중 76번째 ‘일곱 가지 보시의 인연’이라는 글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다. 안시(眼施), 화안시(和顏施), 연시(言施), 신시(身施), 심시(心施), 상좌시(床座施), 찰시(察施)라는 일곱 가지를 요즘 말로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따뜻한 눈빛으로 베풀어라. 부드러운 눈빛, 자상한 눈빛만큼 큰 보시는 없다. ②밝은 얼굴로 베풀어라. 한 사람의 발랄 유쾌한 얼굴 표정 하나가 얼마나 주변을 활기차게 만드는지를 기억하라. ③고운 말로 베풀어라. 다정하고 친절할 말 한마디가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 모르는 이가 있을까. ④부지런한 몸놀림으로 베풀어라. 먼저 들어주고, 먼저 열어주고, 먼저 도와주자. 몸 아껴봤자 살만 쪼다. ⑤진실된 마음으로 베풀어라. 배려하

는 마음,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품는 것만으로도 큰 나눔 실천이다. ⑥양보로 베풀어라. 좋은 자리, 편한 자리 고집하지 말자. 굳이 그 자리 아니어도 괜찮다면 그게 더 큰 축복이다. ⑦먼저 살피 베풀어라. 이는 원래 방사시(房舍施)라 해서 쉴 곳 없는 사람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대와 형편이 달라졌으니 지금은 누군가의 필요를 먼저 살피 채워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큰 베품이 될 것이다.

이상 일곱 가지를 딱 한 단어로 압축하면 인정(人情)이다. 약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측은지심을 가지는 것이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가”라는 농부철학자 전우익 선생의 말은 이미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됐다. 그럼에도 점점 더 각박해져 가는 세상,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안은 나부터라도 이런 베품을 일상화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고 맹전 한 톨 안 들고 할 있는 것이니 어려울 것도 없지 않은가.

“야야, 그러지 마라. 우리가 하나 덜 먹으면 되지.” 계절이 깊어가니 참외밭에서 하시던 어머니 말씀이 새삼 다시 들리는 것만 같다. (끝)



백 순 (법대 58)

<독후감>

조봉완 동문의 [궁정살인]을 읽고

오랫동안 조지타운 대학에서 한국학 교수로 가르치다 은퇴한 조봉완 박사 (법대 53)가 최근 민비의 살해사건을 주제로 한 영문역사소설, [궁정살인] (Murder in the Palace, 2016)을 출간하여 지난 5월 20일 제3회 팔봉문학상을 수상했다.

팔봉문학상은 한국의 저명한 문하평론가이며 소설가인 필봉 김기진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 디시 근교에 거주하고 있는 그의 딸 김복희 여사의 출연금으로 2015에 제정된 이름있는 미주한인문학상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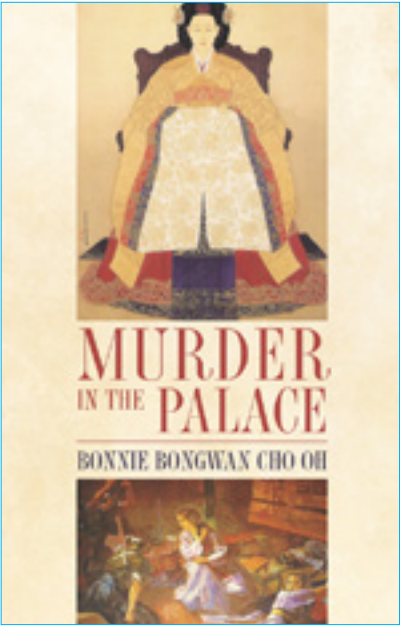
1895년 일본인에 의한 민비의 궁정살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추적하여 1860년대 이후 민비 책봉과 그녀의 궁정생활의 이야기를 근대 조선

의 국내외 역사사건들과 연관 시키어서 풀어 나아가는 [궁정살인]은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역사소설과 다른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첫째 특징은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인 살인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19세기 후반 근대 조선의 역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아니고, 각 등장인물들이 주인공인양 일인칭, I, 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모습의 역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데에 있다.

예를 들면, "I heard loud voices", "I am the Taewon'gun and returning", "I am the real king now", "I am Hanabusa Yoshitada, the first resident Japanese Minister in Korea", "I am Li Hung-chang", "I am Paul

Georg von Mollendorff", "I am O. N. Denny, an American advisor to King Kojong", "I am free now", 등이다. [궁정살인]의 일인칭 사용은 미국의 19대 계관시인 (2012-2013) 이었던 Natasha Tretheway가 제창하는 '역사 지우기'(Historic Eraser)의 발굴인지 모를 일이다.



둘째 특징은 [궁정살인] 역사소설에는 조선의 여러 가지 문화적 모습들(한글)을 이야기 전개과정에서 그대로

영어 알파벳으로 표출하고 있는 데에 있다. 예를 들면, Chogan jich'o, Ch'onji shinmyong, Han, Hapkung, Mudang, Nungji ch'och'am, Ondol, Tongbang yeui ji kuk, Yangban, 등이다.

조선의 문화적 모습을 한글로 직접 이야기 전개에 삽입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조선역사와 궁정살인 사건을 보다 있는 그대로 전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일인칭 사용은 입장과 의견과 비전과 퍼스펙티브 등을 형상화하는 데에는 최고의 이야기 서술방법이지만, 좀 객관적인 사건과 상황이나 등장인물들의 심리적 상황에 대한 제3자적 설명 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진다.

하나 조봉완의 [궁정살인]은 여러 각도의 역사적 관점과 조선문화의 독특한 모습을 담은 역사소설로서 한국인은 누구나 그리고 한국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소설이라 권장하고자 한다.

(‘Murder in the Palace’ 소설책은 Amazon.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중희 (공대 53)

<6.25전쟁 67년을 맞아>

잊을 수 없는 6.25 전쟁의 추억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나는 그때 18세의 서울대 공대 1학년 학생이었으며 부자집의 가정교사였다. 학교에서 돌아 오며 광화문에서 전자에서 내렸다. 난대 없이 광화문 사거리와 종로 일대 상공에 나타난 인민군의 공습! 전혀 전쟁준비가 없었던 한국은 현대의 비행기도 없을 때다. 인민군 전투기는 저공으로 비행하며 거리의 주민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감행했다. '따따따따~~'하는 기관총소리! 갑작스러운 인민군 공습에 죽어가는 거리의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당시 광화문 사거리에는 땅콩, 바나나, 봉어빵등을 파는 리어가 장사들이 많았는데 갑작스런 인민군의 공습과 기관총소리,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도 본능적으로 길바닥에 무조건 엎드려 책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있었다.



의 평상시 일들을 하십시오..."라고. 하지만 6월 28일 아침 이미 인민군의 쏘련제 탱크들이 서울시내를 누비고 다녔다. 돈있고 정부와 통하는 뺑있는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는 한강 철교가 폭파되기 전에 이미 남하했고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라디오의 허위방송을 믿고 안심하고 있을 때다. 옛날 숙담에 "강자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약자 앞에서는 목에 힘을 준다"란 말



잘 보이려고 인민군 완장을 차고 자기 상사를 잡아다 '반역자'라며 두두리곤 했다. 같은 해 9월 28일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자 북한은 더 이상 강자가 아니고 약자가 되었다. 이번에는 못 된 공무원들이 높은자리에 있는 강자에게 잘 보이려고 과거에 개인 감정이 있었던 선량한 사람들을 잡아다 '피난 안간 반동분자'라며 끌고가

마구 때리곤 했다. 한강 다리가 끊겼는데 어떻게 피난을 가란 말인가? 우리 큰 아버지도 그때 맞아 대구에 피난가서 돌아 가셨고 아버지도 나중에 돌아 가셨다.

이런 현실을 경험한 나는 병역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어린 나이에 장교가 되려고 나이를 두살이나 속여 올라 그 당시 유행이었던 '소모품 소위'가 되어 보병 수도사단 최전방에서 매일같이 죽고죽이는 전투를 했었고 적에게 포위도 여러번 당했었다. 전쟁이 끝나고 북한해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조폐공사에 입사했지만 입 바른 소리를 자주하다 '병역 기피자'라는 누명을 쓰고 파면을 당했었다. 그 당시의 한국은 현재와는 비교가 안되는 부패한 나라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몇나라 중의 하나였었다.

휴전 후, 정보국에 근무할 때 상사로 부터 들은 얘기인데 왜 6.25 전날 밤 상부에서는 전방의 지휘관들을 서울로 불러 밤새도록 술파티를 했는지? 왜 훈련된 전방 군인들을 휴가를 보냈는지? 우연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북과 내용하는 계획된 일이었는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다. 오늘의 한국은 67년 전과는 비교가 안되는 많이 발전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만일 오늘 67년 전의 6.25 전쟁과 같은 현실이 다시 일어난다면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상상해 본다.

김희봉 동문의 “안개의 천국” 출판기념회

지난 6월 10일 샌프란시스코 한국일보 커뮤니티 홀에서 김희봉(공대) 동문의 “안개의 천국”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 “한국일보 샌프란시스코”의 칼럼리스트이며, <버클리 문학> 주간인 김희봉 동문의 두번째 산문집 <안개의 천국>이 서울의 태화사에서 발간되었다. 작가는 지난 20년간 “환경과 삶” 칼럼을 통해 생태계 문제와 인간의 삶에 관한 담론을 많은 독자들과 나누어 왔다. 환경전문가의 안목으로 본 생태계 문제, 수필가의 감성으로 쓴 여행 답사기와 울곧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족적을 담았다. 권영민 모교 명예교수는 다음과같이 서문을 썼다. “김희봉



형의 글에는 생에 대한 긍정과 사랑이 넘쳐납니다. 생활 속에 꿈을 가꾸어 나가는 형이야말로 이시대의 로맨티스트라는 사실을 꼭 밝히고 싶습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섭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김희봉 형만이 쓸 수 있는 김희봉 형이 만들어낸 새로운 글쓰기의 영역입니다.”



조동준 (의대 57)

뜻깊은 가족 한국여행

지난 여름 나의 가족12명이 함께 처음으로 한국여행을 하고 왔다. 짧은 일주일동안 서울 시내관광, 경주1박2일 그리고 고향 부산을 둘러보고 왔는데 나에게서는 진정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다.

금년 여름이면 이곳 미국에 들어온지가 꼭 50년이 되는데, 매년 혼자 아니면 아내와 함

함께 한국을 여행해 본적도 없었다. 드디어 다리가 떨리는 이제야 이런 여행계획을 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어쨌거나, 이여행을 끝내고 나니 어떻게나 마음이 후련한지 모르겠다. 속된 이야기로 이제 죽어도 한이 없을것 같다.

나와 아내를 제외 하고는 모두가 영어가 그들의 first language이고 한국말을 쓰는사람



께 다녔지만 이번처럼 12명의 온가족이 함께 나간것은 처음이다.

총각으로 입국해서 벌써 식구가 12명이나 된셈이다. 딸셋에, 사위가 셋이고 손자 둘, 손녀 두명해서 12명이 되었다. 백인 사위 두명에 중국에서 온 한국 사위해서 국적이 다양하나, 다행히도 모두가 한국음식을 좋아하고 한국문화에 호감을 가지고 잘 살아오고 있는데, 사위세사람 모두 한국을 가본적이 없는 처지라 항상 한국을 소개할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지내왔다.

손자와 손녀는 말할것도 없지만 딸들과도

철이나 버스를 탈 때는 항상 물어서 움직이는 셈인데 매년 친절한 사람도 만나기도 쉽지 않는 일이었다.

다행히도 반세기란 세월동안 조국이 눈부시게 발전을 해온 나라이기에 한국을 손주들에게 소개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자랑스러운 생각도 들었다. 손주들에게는 바로 여기가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때 살았던 old home country이라고 소개할 때는 내 어깨가 어색해지는것 같았다. 하지만 손주는 이제서 왜 할아버지가 broken English를 쓰고 있는지를 짐작했으리라 생각이 된다. 부산에는 아직도 여동생들이 살고 있고, 싱싱한 사시미며 해산물을 많이 먹을수 있어서, 사위들이 기다리던 곳이었다. 부산 해운대에서 머물면서 근년에 미국 Manhattan이 무색하게 높은 아파트층으로 변모한 새모습을 볼 수 있었다. 조선 비치호텔에 머물면서, 어릴적 내가 놀던 해운대 비치 모래사장에서 손주들이 노는 모습을 보니 새삼 감개무량하기도했다.

이번 한국여행은 사위들과 손주들이 함께 모두 즐기는여행으로 이어 졌다. 일단 나의 한국소개가 끝나고, 모두 USA로 돌아간 후에 나에게서는 한국을 떠나오기 전 또 하나의 할 일이 생각이 났다. 일생을 통해서 가장 좋은 친구 세사람이 모두 이곳 한국에서 어릴적에 만난 친구들이다. 순박하고 청순했던 십대 청년기에..... 이곳 미국에도 골프도 같이 치고 식당에도 함께가는 친구들이야 있지만, 의기투합하는 멋있는 친구를 만나는 쉽지않다.

50년 전에 떠난 한국, 이제 마지막 찬스가 될 수도 있는 이들과의 추억을 또 한번 되새기고 싶었다. 아나이에 태평양을 넘나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 아님을 체감할 수 있었다.

첫째 친구는 아직도 부산에 살고 있는데, 중학교 일학년때 만나서 일년 사귀었는데, 집안이 어려워 고등학교는 국립체신고등학교로 갔기에 장년이 되고서야 다시 만나게되었고 그후 매년 고향 부산을 찾을때마다 찾아가서 만났다.

두번째 친구는 국민학교 삼학년에서 만난 친구인데 그는 중학교때 학생회장, 고등학교

교 학생회장을 했고, 친구간의 의리와 leadership 이 강해서 대통령 까지도 할 줄 알았다. 국회의원 여러번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7년전부터 파킨슨 병과 치매로 투병하며 최근에는 혼자 약도 먹을수 없을 정도로 일생의 말년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다. 우리들의 우정은 태평양을 오고 가면서, 거리를 모르고 나누어 왔기에, 세상 떠나기 전에 한번 더 보아야겠다 생각하며, 하루밤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간신히 나를 알아보고서, 인생이 서러운지 그의 두 뺨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세번째 친구는 이미 세상을 33년전에 떠난 친구인데, 내내 반장을 해오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일반 대학은 못가고, 육군사관학교로 갔는데, 33년전 암으로 대령때 세상을 떠났다. 그친구의 미망인을 동반하고 32년전에 동작동 국립묘지를 찾았던 적이 있었다. 그 친구가 새삼 무척도 보고 싶어서, 이번에 동작동 국립묘지를 찾아가서, 묘지 앞에서 한동안 추억을 되새기다가 떠나왔다. 이런 좋은 친구들은 청년기에 만난 오래된 친구들이다. 이런 좋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인생이 얼마나 삭막했을까 하는 생각에 잠긴다.

팔십을 내다보는 나이에 이르니, 친구들도 점점 멀어져 가며, 한국도 생각에서 멀어지만 가는것 같기도하다. 어쨌거나, 이번 한국여행은 여러면에서 의미가 많은 여행으로 나의 추억에 남아 있다.

(p6으로부터) 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북한 문제 해결에 당사국으로 동원하고자 하지만 중국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 중국은 일관되게 북한 체제의 붕괴를 허락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체제를 종식시킬 능력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럴 의도는 없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 될 경우 당면하게 될 전략적 위험을 감내하기 보다는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차라 리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중국 국제정치학자 조세공(曹世功)씨는 “불가피하게 북한을 제재하더라도 절대 북한을 포기하거나 북한이 붕괴하도록 내버려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클린턴 대통령 당시 미국 국방장관을 역임한 윌리엄 페리 장관 역시 중국에게 북한 문제 해 결을 의존하지 말라. (Don't rely on China to solve North Korea) 고 조언하고 있다. 6월 20일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결국 코마 상태에서 귀국한 후 며칠 만에 목숨을 잃은 미국 대학생 오토 웬비어(Otto Warmbier) 사건은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전기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까지 약속했지만 중국의 한계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중국 문제와 북한 문제를 엮어 놓은 트럼프는 중국 문제를 해결하면 북한 문제는 저절로 해결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 6월 말 한미 정상 회담이후 그리고 7월 초 회의에서 트럼프의 언급은 북한에 대한 인내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더욱 강력한(severe)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트럼프의 대북한 정책은 웬비어군 사망,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 등으로 다시 한번 고비를 넘고 있다.

4.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을 위해 사활적으로 중요한 안전장치

문재인 정부의 국제정치적인 관점이 과연 한·미동맹을 더욱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 자산처럼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 이 한·미동맹을 얼마나 애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건강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물론 취임 당일인 5월 10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건 축하 전화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핵 문제는 어렵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 관계(not just good ally but great ally)’. 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주저세했다.

이처럼 양국 모두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의문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드의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일부 평자들은 사드 문제는 한·미동맹을 파탄 내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한국의 생존에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미 사대주의자’라고 비

하당하고 민족주의적이지 못하다고 비난 받고 있지만 국제정치의 현실상 한국은 혼자 힘으로 생존과 독립, 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나라라고 보기 힘들다. 한국은 전신인 조선이 멸망할 무렵 이단20세기 초반과 고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동북아 국제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상대적인 ‘약소국’이다. 100여 년 전의 조선은 지금처럼 적대적으로 분단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 상태가 1세기전보다 오히려 더욱 위험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100여 년 전과 지금은 판이하게 다른 상황인 것은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과 동맹국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이 한·미동맹의 시절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기에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 나라의 운명에 대해 극도로 초조해 했던 것은 미국의 특사가 조선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당실당실 춤을 추었다’고 할 정도로 기뻐했다. 주변 열강이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 호시 탐탐 노리고 있을 때 미국은 조선의 독립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나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에 한국은 세계 최악의 지정학적 우범지대(地政學的 虞犯地帶)인 동북아시아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심지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며 살아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공기와 물은 평소에도 그 중요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기와 물의 중요성은 “그 것들이 없어진다면?”이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통해서 쉽게 설명될 수 있다. 한·미동맹도 그것과 비슷하다. “한·미 동맹이 종료된다면 어떻게 될까?” 가능성이 그다지 큰 것은 아니지만 현시점은 ‘한·미동맹이 종식될 지도 모를 가능성’이 한·미동맹의 과거 역사에서 비추어 볼 경우 어느 때 보다 높은 편에 속하는 때라고 말 할 수 있겠다. 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진정 한·미동맹을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어보 면 곧 알 수 있는 문제다. 한번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 보자. 한·미동맹이 오늘 종료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수 년전 숙명여자대학 정외과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는 필자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맥락이 약간 다르지만 유사한 질문을 했었다. “만약 오늘 지구상에서 미국이란 나라의 존재가 없어진다면 동북아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였다. 학생들의 대답이 너무나도 정확해서 놀랐다. “대만은 그날로 중국에 항복하거나 점령당하겠지요.” “중국이 한국을 욱박지를 거예요.”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일본이 독도를 점령해 버릴지도 모르죠.”

모두 한·미동맹이 없어질 경우에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다. 중국은 본시 한국을 자신과 대등한 차원의 주권국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다. 한·미동맹의 해체는 중국이 언제라도 한국을 마치 명나라가 조선 다루듯 ‘아랫 것’으로 다룰 수 있는 상황의 재 도래를 의미한다. 북한 역시 드디어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통일의 날이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한국을 욱박지를 것이다. 사실 현재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종료된다면 북한은 직접 무력을 사용하

지 않거나 대한민국을 핵으로 협박 전쟁을 하지 않은 채 평화적으로 대한민국을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 할 것이다. 일본 역시 기회가 왔다고 생각 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만 본다 해도 한국과 일본은 사실 상 ‘적국’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일본을 진정한 우방국으로 대했는지 의문이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한·일 관계가 파탄나지 않은 이유는 한·미, 마·일 동맹으로 연계된 3각 관계의 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미동맹의 고리가 끊어지는 날 한·일 관계는 거의 즉각적으로 적대(敵對)관계가 될 것이다. 한·미동맹의 종식은 한·미관계가 “적대관계”로 진행될 가능성마저 아주 높게 만들 것이다. 현재의 동북아시아는 마·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준 전시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들은 적과 친구를 아주 단순하게 분류한다. 같은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이 종료되는 순간 한국을 잠재적 적성국으로 분류 할 것이다. 그게 국제정치의 현실인 것이다.

이렇게 야기될 국가 안보의 위협 상황은 즉각적으로 “국가경제의 파탄”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 한·미동맹과 이에 따라 한국에 주도하는 미국군의 존재는 외국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을 투자 적격 국으로 인식하게 한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국가안보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에 투자되었던 외국자본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국가안보의 위협, 국가경제의 위협 상황이 발발할 가능성이 단 1% 라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책의 실패로 판단이다. 한·미동맹은 60년 이상 이 같은 일들의 발생을 막았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존재를 우리나라 생존의 관건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5. 마·중 패권 경쟁의 승자는 미국

오늘을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는 세상이라고 말한다. 특히 중국의 힘을 두렵게 생각하는 한국인들 중에는 곧 중국이 미국을 앞서게 될 것이니 미국보다는 중국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를 국제정치에서 “줄타기”에 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어느 나라 편에 서야 할 것인가의 기준은 “어느 나라가 궁극적인 승자가 될 것인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다. 즉 누구의 힘이 더 막강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올바른 정책결정의 요체다. 마·중 패권 경쟁에서의 승자는 미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수많은 근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거는 “미국은 평화적으로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양보할 수 없는 나라”라는 미국적 전략 문화이다. 이는 “역사상 어떤 패권국도 자신의 지위를 도전자에게 평화롭게 양도한 적은 없었다.”라는 국제정치사의 증명된 진리에서 추론된 논리다. 미국처럼 압도적으로 막강한 나라가 머뭇거리고 있다가 도전자인 중국에게 자리를 뺏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은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종합 국력의 제 측면에서 중국을 압도한다. 중국이 미국 식 자유주의, 자본주의 제도를 택하지 않은 채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이제는 확실해 졌다. 미국식 기업가 정신(American Entrepreneurship)은 세일 석유혁명을 가능케 했고 현재 최소 200년을 쓸 수 있는 석유와 100년을 쓸 수 있는 가스를 확보한 상태다. 이미 오래전부터 식량자급이 가능했던 미국은 이제 에너지 자급마저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지구 역사상 두 가지를 모두 자급할 수 있는 강대국이 출현한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상황이 존재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날 미국의 신조(credo)는 세계주의(globalism)가 아니라 미국제일주의(Americanism)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2차, 3차 산업혁명의 주도국가인 미국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나라다. 최근 이 코노미스트지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구글, 우버, 페이스북 북을 향후 반세기 이상 세계 경제의 진행 방향을 결정할 혁신기업들이라고 소개했다. 모두 미국의 기업들이다.

게다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인구통계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인구통계학은 운명이다. (Demography is Destiny)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결이 어려운 것인데 중국은 이제 곧 세계 최악의 인구통계학적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다. 그 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대한민국이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할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다만 미국에게는 느긋한 여유라고 말 할 수 있는 현 국제 체제가 우리나라에게는 더욱 불안하고 불확실한 국제 체제가 될 지도 모를 사실을 우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도 세계 제 1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것이 확실해진 미국은 냉전시대처럼 세계 문제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석유를 확보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조차 지켜줄 필요가 있을지 회의(懷疑)하고 있고 일부 학자들은 독일주둔 미군도 철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생각하는 한반도의 중요성은 어떻게 변할까?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한·미동맹 유지정책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6. 결론

모든 나라들에게 국가안보란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이다. 죽고 사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안보는 특히 중요하다. 안보 상황이 위태로운 불안정한 지정학적 환경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핵심축이며 존재론적 중요성을 갖는 안전장치다.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결국 우리의 국가전략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한·미동맹을 잘 유지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한·미동맹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지만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늘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갈등 요인을 줄이는 가장 빠르고 쉬운 일이다. 우리가 한·미동맹에 보다 더 큰 경제적 기여를 한다는 것은 한 미관계에서 우리의 독립성과 역할을 제고 시킬 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유지에도 긍정적인 일이 될 것이다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이 상치되는 일은 아니다. (끝)

(from Page 8) But that’s not the perception among Chinese elites. In their view, North Korea has acquired nuclear weapons – and seeks the ability to target the American homeland – out of insecurity. They told me, “You need to understand the Americans are the source of their fear.”

The Chinese say that becaus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so much more powerful than North Korea, and because the United States goes around the world toppling governments, it’s no wonder that Pyongyang is scared and wants nuclear weapons. In other words, the country that’s the menacing rogue state is not North Korea—it’s America.

The Chinese not only have a very different diagnosis of the problem, they have a very different idea about its solution. As I said, the Americans see China as the key to solving the problem. But China sees the Americans as the key. Only the Americans (by reducing North Korea’s fear) can solve the problem. The United States should stop the large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that so antagonize the North, and provide security assurances to Pyongyang. They should withdraw its military forces from the peninsula. Finally, the Chinese interests at stake are also very different. Clearly the United States is the most concerned about North Korean missile and nuclear capabilities that could reach the United States. That is why the Trump administration is paying greater attention 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an did previous administrations. But this is not something that bothers China. Beijing is most concerned that pressure on the Kim regime could lead to a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hina would have to pressure it very hard, and are worried that this much pressure – enough to convince the Kim regime to abandon what it sees as a vital deterrent – would be so much pressure, the Kim regime would fall.

China is concerned about regime collapse in North Korea because of the instability it might cause on the peninsula. Government collapse in Pyongyang could create anarchy or a vacuum in which several serious problems might develop. These might include the disappearance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cross international borders; a humanitarian disaster, if government-provided food and health services cease in the chaos of collapse; hunger and insecurity could trigger a massive refugee crisis if North Koreans take flight in search of food and safety. And in this situation there would also be the potential for ongoing violence and insurgency.

In this situation, China is likely to send its military forces down into North

Korea to stabilize its border. China also fears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ould intervene to alleviate the instability on the peninsula. Indeed, fearing a humanitarian disaster, and seeking to secure WMD, the US and South Korea might choose to perform a variety of military missions.

In a previous project, “The Collapse of North Korea: Military Missions and Requirements,” published in the journal International Security, a RAND analyst and I analyzed these missions. Some could include (1) finding, securing, and eliminating North Korea’s WMD program; (2) stability operations to secure roads, provide public security, and deliver humanitarian relief; (3) border control; (4) the disarmament of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in order to disarm potential insurgents; and (5) a rapid reaction force standing by to deter or subdue any insurgency that might interfere with the provision of aid. My co-author and I modeled the requirements for each of these missions, and the potential requirements are formidable. They would require hundreds of thousands of troops to perform.

So imagine that you are China, and you are looking at the prospect of serious instability on your southern border – the kind of instability that will be pouring over your border into your country, and the kind of instability that will bring two powerful militaries close to your border. Just because of the short-term instability alone, this is a situation that you would want to avoid at all costs.

Now let’s talk about the longer time horizon. First, the Chinese are worried about a demographic problem related to North Korean collapse. The population of China’s Yanbian autonomous prefecture within Jilin province is already 40 percent Korean ethnicity. Beijing doesn’t want more ethnic Koreans there – many North Koreans already fled there during the famine. The Chinese are afraid that this will promote secessionist feeling – and China is already worried about secession in several different areas such as Tibet, Xinjiang, and Taiwan.

Another reason why China wants to prevent regime collapse in North Korea relates to broader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military competition between them. If there is a regime collapse in North Korea, most likely there would end up being a unified Korea under ROK leadership.

This is a situation that the Chinese want to avoid. They don’t want a unified Korea allied with the United States – they would have lost their buffer state between themselves and U.S. forces in Asia. China would be very hostile to the idea of U.S. troops on its southern

border. The Chinese also say they like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 threat preoccupies and ties up the U.S. military – which would otherwise get interested in Taiwan and the South China Sea. So for all of these reasons, related to concerns about both the short term and longer term, the Chinese are deeply apprehensive about regime collapse in North Korea. Several Chinese scholars told me that they thought that China might indeed put more pressure on North Korea, but never as much as the US would like. They said, “We will not fundamentally change our position.” Thus when it comes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ijing and Washington have core differences in their perceptions, and core differences in their interests.

China is not going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because the policies that it would take to do so are not in Beijing’s interest. This is not a matter of someone failing to explain things to Beijing. Beijing knows what is in its interests, and its interests are different than America’s.

So where do we go from here – if China is not going to be willing to pressure Pyongyang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what direction will US policy take? I believe there is a deal to be had, although it’s not clear we’ll get there. It’s not a very satisfying deal, but nonetheless it’s a deal that countries might be able to live with.

What would that deal look like? First, the deal is that the US unofficially accepts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s state (but does not admit so). This would have to be unofficial given the U.S. stated commitment to halting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Washington would do so in exchange for North Korea freezing its development of long range delivery systems, meaning the kinds of weapons that can reach the US.

To this point, North Korea has only successfully tested missiles that can threaten neighboring countries: short-range and intermediate range missiles. That’s a distinction that matters a lot to the US. So I think the US will want to make a deal that freezes NK’s long range missile development program.

How will Washington try to get that deal? Washington will try to bring China on board: to get China to agree to a deal in which China will tell North Korea that Beijing will crack down on the North Korean economy if it continues with ICBM testing. But if North Korea does not further develop its intercontinental capabilities, Beijing will continue to allow all of those illicit business activities – and Beijing will continue its

lax enforcement of UN sanctions.

Why might China do this (after all, I just spent all this time talking about why China will not pressure North Korea!) To be clear, this deal is not about China trying to squeeze North Korea to get rid of its nukes. This is a much lower bar and would require much less pressure, so Beijing might feel it could be achieved without risking regime collapse.

How might the Trump administration bring Beijing on board with this deal? The answer is not to continue insisting that the Chinese share U.S. interests (as noted, they do not). The answer is side payments. What does Beijing want? What can the Trump administration give it – perhaps related to currency politics, to the South China Sea, to the US-Japan alliance, to Taiwan. The US president wrote a book on how to make a deal: Let’s see if he can make one with Beijing.

This deal is plausible: it is good for North Korea. North Korea needs its nuclear weapons, but it doesn’t need to necessarily reach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A regional capability would be a strong enough deterrent. This deal would also be good for the United States. Sure, we would prefer that North Korea does not have nuclear weapons, but the thing we really care about is that Pyongyang doesn’t get an ICBM capability. The deal is also good for China (or at least it could be good for China, depending on what Beijing can extract from Washington).

There are some countries the deal is not good for – namely Japan and South Korea. For indeed, those countries want to get rid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are concerned about its regional capabilities rather than its intercontinental ones.

We’ll never hear about it if the deal is made, for it would have to be very quiet. And any concession made toward China would not be linked to the North Korea situation. The way we might infer it’s been struck is if many months go by without long-range missile testing – for otherwise that is a clear priority in Pyongyang.

America can continue to insist that North Korea cannot have nuclear weapons – but this is a policy that has failed across numerous administrations, while Pyongyang’s capabilities have only grown more powerful. Washington can continue with this rhetoric, but given the growing threat, it’s time for a change in policy.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재정 / 보험 / 컨설팅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오흥조(치대 56) Oh, Heung Jo 286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8205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엔지니어링 컨설팅 / 건축
Lee & Ro, Inc. 노명호 (공대 61) Tel.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안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중모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l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 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pec.org, jschung@isopec.org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동물병원 / 치과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5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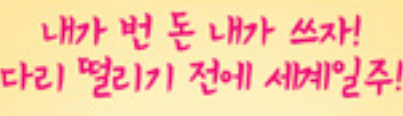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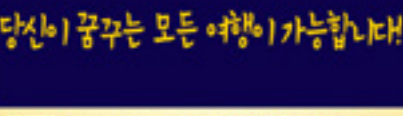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240 Grand Ave Suite 2 Leonia NJ 07605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계동휘종합치과(잇몸수술 전문의) Wayne Kye D.D.S, M.S 계동휘 (치대 67) Tel.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Englewood Cliffs, NJ 07632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평의원 회비 납부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지부	직함	이름	회비	뉴욕	평의원	박상원 (음대 69)	100	시카고	평의원	구영자 (간호 69)	100	필라	평의원 (위임)	김경희 (가정 71)	100
남가주	평의원	김경애 (미대 83)	100	뉴욕	평의원	신용남 (농대 70)	100	시카고	평의원	박장열 (공대 60)	100	필라	평의원	김정현 (공대 68)	100
남가주	평의원	김기형 (상대 75)	100	뉴욕	평의원	유시영 (문리 68)	100	시카고	전 미주동창회장	이용락 (공대 48)	100	필라	평의원	김현영 (수의 58)	100
남가주	동창회장	김병연 (공대 68)	100	뉴욕	전 미주동창회장	이전구 (농대 60)	100	시카고	평의원	한경진 (상대 59)	100	필라	종신이사	서종민 (공대 64)	100
남가주	전 미주동창회장	박윤수 (문리 48)	100	뉴욕	평의원 (위임)	이희만 (간호 70)	100	시카고	평의원	한재은 (의대 59)	100	필라	전 미주동창회장	손재욱 (가정 77)	100
남가주	종신이사	박종수 (수의 58)	100	뉴욕	평의원 (위임)	정해민 (법대 55)	100	오하이오	평의원 (위임)	김동광 (공대 62)	100	필라	평의원	이성욱 (가정 74)	100
남가주	평의원	성주경 (상대 68)	100	뉴욕	평의원 (위임)	조정현 (수의 58)	100	오하이오	평의원	김용현 (상대 59)	100	필라	평의원 (위임)	지재원 (사대 68)	100
남가주	평의원	유혜연 (음대 79)	100	뉴욕	평의원 (위임, 임원)	허유선 (가정 83)	100	DC	평의원	박평일 (농대 69)	100	필라	평의원	최정웅 (공대 64)	100
남가주	평의원	이서희 (법대 70)	100	뉴잉글랜드	평의원	고일석 (보건 69)	100	DC	평의원	안선미 (농대 65)	100	필라	평의원	황선희 (공대 74)	100
남가주	종신이사	제영혜 (가정 71)	100	뉴잉글랜드	종신이사	김문소 (수의 61)	100	DC	전 미주동창회장	오인환 (문리 63)	100	하트랜드	평의원	구명순 (간호 66)	100
남가주	평의원	조종훈 (의대 57)	100	뉴잉글랜드	현 미주동창회장	윤상래 (수의 62)	100	DC	평의원	정원자 (농대 62)	100	하트랜드	평의원	김경숙 (가정 70)	100
남가주	종신이사	한귀희 (미대 68)	100	뉴잉글랜드	평의원	이강철 (공대 76)	100	DC	평의원	주기숙 (수의 68)	100	하트랜드	평의원	김명자 (문리 62)	100
남가주	평의원	한효동 (공대 58)	100	뉴잉글랜드	평의원	이영진 (사대 74)	100	DC	평의원	한정민 (농대 87)	100	하트랜드	평의원	김재권 (사법 68)	100
북가주	평의원	홍선례 (음대 70)	100	뉴잉글랜드	평의원	이의인 (공대 68)	100	DC	평의원	함은진 (음대 77)	100	하트랜드	종신이사	이상강 (의대 70)	100
뉴욕	전 동창회장	최경선 (농대 65)	100	뉴잉글랜드	평의원	이정수 (공대 71)	100	워싱턴주	평의원 (위임)	김아라 (경영 10)	100				
뉴욕	전 동창회장	김도명 (농대 70)	100	뉴잉글랜드	평의원	정선주 (간호 68)	100	조지아	평의원	주종광 (약대 60)	100				
뉴욕	평의원 (임원)	김원영 (미대 81)	100	뉴잉글랜드	평의원	정정욱 (의대 60)	100	조지아	평의원	허지영	100				

MD·VA·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팅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an.com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팔영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륙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쉽으로 어느 곳이든 자유와 편하게 여행 가능합니다. 봉사자들과 현지 가이드의 일체시스템, 맞춤형 여행과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 곳이든 5대륙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com 213-388-4000
광고문의: (484)344-5500

각 지부 평의원께서는 평의원 회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미주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역대회장	남가주 S.CA/NV	회장	성주경 (상대 68)	213-500-7977	jksung@skcinsurance.com	Feb-Jan
		차기회장	강신용 (사대 73)	213-380-3801	gamkocpa@hot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희례 (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치)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 오인환 (문) · 손재욱 (가정) 명예회장: 손재욱 (가정)	뉴욕 NY/NJ/CT	회장	이대영 (문리 64)	516-770-0070	dyldyl88@hot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박영철 (농대 64)	781-674-2498	youngpark6@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달라스 LA/DALLAS	회장	이석호 (농대 78)	214-244-3630	iseeko@gmail.com	Jan-Dec
	텍사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운 (공대 77)	480-207-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수석 부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욱 (의), 김문소 (수)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황효숙 (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이정석 (공대 87)	858-243-3254	jslee029@gmail.com	Nov-Oct
		차기회장				
집행부	시카고 IL/IN/WI/MI	회장	한경진 (상대 59)	847-858-7556	jimkhah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의), 총무보: 황보민영 (공)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용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IT 국장: 곽세홍 (공)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오레곤 OR/ID	회장	김기린 (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안선미 (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정세근 (자연 82)	703-785-8467	saekewn@gmail.com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김정현 (공) 편집 위원: 곽세홍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김제성 (공), 배지선 (수), 장수인 (음), 정태영 (문), 이영인 (사), 윤용훈 (공), 허유선 (가정), 홍선례 (음), 한정민 (농)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하주홍 (경영 77)	402-631-3567	jh.ha@live.com	Jan-Dec
		차기회장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mrmsft@hotmail.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IT위원장: 김정현 (공)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김성근 (법대 78)	512-750-4680	hi5christ@gmail.com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고병철 (법), 김일훈 (의), 김용현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이석구 (문), 이원영 (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최정웅 (공대 64)	484-467-7609	jungwoongchoi@gmail.com	Jul-Jun
		차기회장	박혜란 (음대 84)	215-499-0320	helen4music@hotmail.com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조동건 (공대 69)	561-213-8228	dcho0806@bellsouth.net	Jul-Jun
		차기회장	정지영 (법대)			
회칙 위원회: 위원장 한재은 (의)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이민연 (법), 함은선 (음)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코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9	w	
		차기회장				
SNUAAUSA CENTYRY FO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사회 봉사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수)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하를랜드 IA/MO/KS/NE/AR/OK	회장	김제권 (사대 68)	918-810-6393	jaykwonkim@hotmail.com	Sep-Aug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942	k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캐나다 CANADA	회장	이명규 (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 (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ALBERTA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감사: 박영철 (농)	감사: 박영철 (농)	감사: 박영철 (농)	감사: 박영철 (농)	감사: 박영철 (농)	감사: 박영철 (농)	감사: 박영철 (농)



Law offices of E. Peter Shin, ESQ.

신응남 변호사

무료상담 한영
24시간 연락
무료 주차장

합동법률사무소



여러분의 골치아픈 법률문제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들만이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한국 대기업의 뉴욕지사에서 각종 소송사건을 담당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구비한 실력있는 변호사 (뉴욕, 뉴저지 & 비연방법원사격소지)

파산(개인, 회사)전문/ 모기지, 부채조정/ 각종 민사 소송/ 영어/ 사업체 및 부동산 매매

718-463-3131 (201)941-7969 Fax: (718)463-6789
Email: petershinesq@gmail.com
뉴욕(플러싱):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뉴저지: 12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일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는 싱글맘,
이제 좋은 짝만 있으면 되겠죠?

결혼해 듀오

DUO USA (LA) 3000 W. 6th Suite #317 LA, CA 90020 (NY)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LA 213-383-2525
NY 212-947-2525

MAKE THE WORLD BEAUTIFUL



SeAH

SeAH Steel America

2100 Main St. Suite 100
Irvine, CA 92614
(949) 655-8000

회장: 이병준 (상대 55)

